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평범한 이들의 평범치 않은 보스톤 마라톤 도전기

은퇴후 마라톤 시작 최고령 참가자 장세민 씨
최고령 7대륙 고봉 등반기록 김명준 씨
신혼여행 대신 보스톤마라톤을 택한 김나연 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6 마일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마라톤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부분이 평범한 가족 또는 이웃이며 친구였다.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이들의 삶의 궤적은 달라졌다.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그 전과 그후로 나뉘어진다. 그만큼 마라톤은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60여년을 살아왔다가 마라톤을 시작해 올해 77세에 보스톤마라톤에 참가한 사람, 은행 이사장, 의류사업가였지만 산을 오르고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한계를 넘어버린 73세의 한인, 직장에서 제공하는 마라톤 프로그램에 참가해 이후 철인 3종 경기까지 하게된 34세의 한국여성 등 올해도 보스톤 마라톤은 여러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다.

모두가 달리는 것은 같지만 그들이 각자 간직한 사연들은 다르다.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은 '달릴 때 행복하다'고 말한다. 달리는 순간 순간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넘어 완주했을 때 너무 재밌다는 것이다. 힘들지 않는 삶은 없지만 순간이 지나면 행복이 대가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마라톤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올해 120회 마라톤 대회에 한국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은 전체 참가자 30712명 중 97명이다. 한국 국적자들은 총 116명이다. 미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한인들이 18명과 일본에서 참가한 1명이 한국 국적이다. 그리고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한인 시민권자들도 일부 참가했다. 다

▶▶2면으로 계속



신혼여행 미루고 보스톤마라톤 찾는 김나연 씨(36)

16년만의 '완전한' 여소야대

참패 새누리 패닉, 극심한 내홍 예상
'원내 제1당 도약' 더민주, '호남, '친노' 분리 속에 대어 공세 강화될 듯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민심이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20대 총선에서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지금의 여권(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은지 8년 만이다.

새누리당이 참패하며, 원내 제1당의 지위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막장드라마 수준의 공천 파동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았다.

더민주는 수도권에서의 대승을 바탕으로 원내 제1당으로 올라가면서 강력한 대어(對與)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업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sang.com



준성수기 특가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1550
대한항공 (뉴욕경유)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866.619.4223(Toll Free)/617.424.8956

*\$1550에는 국내선 연결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5/1부터 5/19까지 또는 7/4부터 8/20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에 한해 적용됩니다.
동시에 2016년 4월 30일 전까지 발권되어야 합니다.
항공권 요금은 여행일정, 항공사, 예약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 평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함인항공권 전문
IA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
기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제이슨 전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445.1587
juno@selamiboston.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올해 보스톤 마라톤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는 97명

▶▶1면에 이어서

만 보스톤운동협회(BAA)는 한인 시민권자의 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도 보스톤 마라톤 한인 참가자들 중 평범 하면서도 평범치 않는 사연들을 소개한다.

최고령 참가자 장세민씨

장세민(77세) 씨는 한인 마라톤 참가자 중에서 김무조씨와 함께 최고령 참가자다. 보스톤 마라톤의 최고령 참가자는 84세의 뉴욕주 메드포드시에 거주하는 윙클러 줄레스 씨다.

장세민씨가 보스톤 마라톤에 도전하게 된 것은 뉴욕, 보스톤, 시카고, 런던, 베를린 5대 세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다. 이미 뉴욕은 5-6년전 참가했지만 보스톤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심장과열연덕(Heart Break Hill)을 알지 못하지만 오는 18일 대회에서는 5-6시간 정도 완주할 계획을 잡고 서두르지 않을 작정이다.

58세에 퇴직하고 만 60세부터 마라톤을 시작하게 됐다. 시작후 새마을 운동에 입교해 아침마다 뛰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좋아졌다. 이 계기로 마라톤에 입문했다. 한국 마라톤대회에서는 가장 유명한 조선일보 마라톤을 10년 연속 완주해 명예의 전당에도 들어갔다.

마라톤 준비를 위해 평상시에 등산을 많이 한다. 대회를 앞두고는 일주일에 두번 가끔 일주일에 서너번 10Km 정도를 뛴다. 마라톤 풀코스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뛰며 무리하지 않는다.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반한 김명준(73세)

50대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후 그는 뛰고 올랐다. 재미 산악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남극, 북극을 포함한 7대주에서 마라톤을 완주한 기록도 가진 마라톤 선수다.

미국에 이민해 은행을 만들고 의류업을 하면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겸 산을 찾았다. 산에 가면 마음이 편해졌다. 어느새 산악인이 됐다. 2007년에는 7대륙 최고봉 최고령 등정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등반에 필요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조깅을 시작한 것이 마라톤까지 이어졌다. 그는 지난 2014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 당시 풀코스 완주가 70회, 1년에 5회정도를 뛰었다. 김명준 씨는 올해 보스톤 마라톤을 달린다. 김명준 씨는 2003년, 2004년에 이어 올해 보스톤마라톤이 세번째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이민을 결심했다. LA의 한인계 은행의 이사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전세계에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한계가 없는 삶>이란 책이 있다.

신혼여행 미루고 보스톤마라톤 찾은 김나현 씨(36)

보스톤 마라톤은 김나현 차장(36)에게 특별하다. 게임회사 넥슨에 근무하는 김 차장은 회사의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30명 중 유일하게 보스톤 마라톤 출전 자격을 따냈다. 그의 기록은 3시간 35분.



(좌)7대주에서 마라톤을 완주한 기록을 가진 김명준(73세)씨 (우)게임회사 넥슨에 근무하며 회사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해서 보스톤 마라톤 출전 자격을 획득한 김나현(36세)씨



김 차장은 마라톤을 통해 자신의 남편을 만났다. 지난주 결혼식을 올린 김 차장은 신혼여행을 미루고 보스톤 마라톤을 택했다.

넥슨에 다니며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김 차장이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2년전. 회사의 프로그램 전문 코치의 조언을 받으며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넥슨러너즈>에 가입하면서 그는 마라토너가 됐다.

이 프로그램은 넥슨과 오픈케어가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이었다. 동료 30여명은 1년의 훈련을 통해 모두 마라톤을 완주했다.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겁자 1년을 더 훈련해서 보스톤 마라톤 출전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김 차장만 유일하게 보스톤 마라톤에 참가하게 됐다.

지금까지 2년 동안 3번의 마라톤을 완주했다. 4번째 코스인 보스톤은 그에게 특별하다. 김 차

장은 “4대 마라톤 중의 하나이며 가장 오래된 마라톤인 보스톤 마라톤은 기록제한까지 있어서 더욱 강한 동기가 필요했다.” 고 말했다.

김 차장은 마라톤을 배우면서 달리는 즐거움을 알게됐다. “순간순간 힘들지만 뛰다보면 재밌다” 는 김 차장은 마라톤에 흠뻑 빠져들었다. 힘든 것을 이겨냈을 때 갖는 성취감이 강하다 보니 점점 더 도전을 하게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지금은 시험삼아 해본 철인 3종 경기까지 한다.

신혼여행을 미루고 택한 보스톤 마라톤에 남편은 같이 오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을 배려해준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김 차장은 이번 마라톤에 출전하며 넥슨 소아암 병동 지원을 홍보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김 차장에게서는 마라톤이 주는 행복이 느껴진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정치인턴 모금만찬 성황리에 개최

하워드 고, 데니얼 고, 스티브 고 부자 모두 기조연사로 연설기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4월 9일 정치인턴 후원 기금모금 만찬을 개최해 정치인턴으로 선발된 전하나, 한동명, 박하영, 장준혁, 장원영, 서민기, 김윤교, 고선민, 오세라, 서진영 학생 등 총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들은 올 여름 찰리 베이커 주지사, 엘리자 베스 워렌 상원의원, 미셸 우 보스톤 시장, 르랜드 청 캄브리지 시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된다.

렉싱턴소재 엘크스 클럽에서 개최된 이번 만찬에는 스티브 에릭 고 (고원영) 미 법무부 연방검사실 변호사이자 조지타운 법대 외래교수는 이날 강연을 통해 젊은 차세대 한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인이 가진 장점들을 통해 자긍심을 가지고 미 주류사회에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경해 회장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0명의 인턴 후보자가 신청해 모두 선발했다” 고 밝히고 한인교민들의 관심과 인턴십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 이 회장은 또 “1990년부터 지속되어 온 시민협회는 한인들의 권익신장과 차세대의 육성에 계속 초점을 둔 사명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엄성준 총영사는 시민협회가 미래 한인 세대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하고 젊은 한인 세대가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

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연설자로 초대된 한인 3세인 스티브 에릭 고 (고원영) 미 법무부 연방검사실 변호사이자 조지타운 법대 외래교수는 이날 강연을 통해 젊은 차세대 한인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인이 가진 장점들을 통해 자긍심을 가지고 미 주류사회에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정신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정치인턴으로 찰리 베이커 주지사 사무실, 미셸 우 보스톤 시의회 의장, 르랜드 청 캄브리지 시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진 박, 임지윤, 서민기 그리고 스티브 박 학생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발표하는 순서도 가졌다.

이중 찰리 베이커 주지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진 박 학생(보스톤 대학) 은 인턴십 보고를 통하여 “주 의회 의사당에서 인턴을 하는 기간동안 주 정부에서 각 소수민족의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배웠으며 주 정부는 각 소수민족 간부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과 회의를 하는 것을 보았다” 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주 정부내에 아시아계 대표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시민협회 이경해 회장은 엄성준 총영사, 이기영 편집장 그리고 주연설자인 스티브 에릭 고(고



시민 협회 주최로 지난 4월 9일 개최된 정치인턴 후원 기금 모금 만찬을 성황리에 마친 모습



이번 정치인턴 후원 기금 모금 만찬에는 하워드 고 박사와 두 아들 데니얼 고, 스티브 에릭 고 모두가 기조연설을 했다

원영)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경해 회장은 “특히 엄성준 총영사님의 열성적인 시민협회의 후원과 차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한 깊이 한다” 고 밝혔다.

한 시민협회 이사는 “이번 행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 하워드 고 박사(Dr. Howard Koh) 와 두 아들 데니얼 에릭 고(작년) 과 스티브 에릭 고(올해) 모두가 시민협회 정치인턴 만찬에서 기

조연설을 한 점” 이라고 말하고 “자랑스런 코리아 안어메리칸인 고씨 일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 모임이었다” 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 후 특별 공연 순서로는 소프라노 나윤선씨의 아름다운 가곡 공연과 보스톤 코리아안댄스 그룹의 공연이 펼쳐졌다.

bostonkorean@hotmail.co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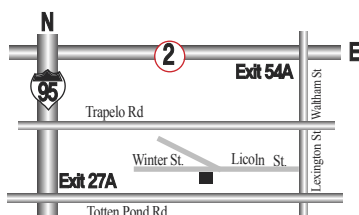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ng 2016 Schedule

Class	Time
SAT II MATH I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9:00 AM - 11:00 AM
SAT II / AP Chemistry	Start 3/14/16 - 5/28/16 Saturdays 11:30 AM - 1:30 PM
SAT II / AP Biology	Start 3/12/16 - 5/28/16 Saturdays 2:00 PM - 4:00 PM
SAT II MATH 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4:30 PM - 6:30 PM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2016년도 재미한인 장학기금 장학생 40명 선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고민토록 평가요소중 에세이 비중 강조
총 40명 선발, 전문대학원 유형 폐지 및 일반분야 대학원에 통합 등 개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미대사관은 2016년 재미한인장학기금 대상자 40여명을 선발키로 하고 오는 6월 13일 접수를 마감한다. 주미대사관은 기금 이자율하락에 따라 선발 규모를 40명 내외로 축소했다. 미국 대학 정규 학사학위 이상 과정에 재학중인 한국계 대학(원)생으로 부모중 한 사람이 한국계인 동포학생, 입양된 동포학생, 유학생으로서 직전 1년간 GPA 3.5(예능계 지원자 3.0) 이상인 사람은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주미대사관이 시행하는 재미한인장학기금(The Korean Honor Scholarship)의 2016년도 장학생 선발규모는 40명 내외로서 미국 35명 내외, 캐나다 5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캐나다 지역 장학생은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에서 공고.심사.선발.장학금 지급 등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지역 장학생의 경우, 분야별로는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동포학생과 한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장학생 30명 내외, 음악.미술의 예능계 장학생 2~3명, 장애학생 등 특별 장학생 1~2명 등으로 배정되었다.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는 GPA, 추천서, 에세이, 이력서(입상실적, 특별활동, 리더십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지원자들은 반드시 직전 1년(' 15년 가을학기 및 ' 16년 봄학기)의 대학(원) 성적(GPA)을 제출하여야 한다. 동 장학기금의 장학금 수혜는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미 수혜받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원서는 총영사관별로 4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교부하고 접수받는다. 각 총영사관 지역심사(6. 22 ~ 6. 24), 대사관 중앙심사(7. 5 ~ 7. 8)를 거쳐 9월 12일부터 19일 사이에 장학금 수여가 진행된다.



재미한인장학기금은 1981년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출연한 100만불, 1985년도에 추가 출연한 50만불 그리고 2003년도에 한인이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연한 80만불 및 2008년도 21만불, 2009년도 24만불, 2010년도 15만불의 추가출연분 등 총 290만불의 기금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매년 미국과 캐나다지역의 우수한 동포대학(원)생과 한국유학생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2015년까지 34회에 걸쳐 총 3,003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국제선교회 이은주 회장

국제선교회 NAICFM Boston 모금 만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국제 선교회는 5월 14일 오후 6시 헤이버힐 소재 디부로스(DiBurro's)에서 기금 모금 만찬을 개최한다.

국제선교회는 이번 만찬에서 거두어지는 모금은 “소외되고 불우한 여성들의 재활센터와 고국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의 교육 보조금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6년에는 국제결혼가정 2세들과 한인가정 자녀들이 합심하여 사회봉사에 이바지 할수있는 길을 열어주기엔 전심을 다할것”이라는 게 국제선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날 만찬의 입장료는 \$60이며 티켓 또는 만찬 관련 질문은 이은주 회장(978-394-9211)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백은세 Eun Se Baik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용수용지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정관장 뉴잡랜드 녹용과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만남

**치유 보습으로 피부의
기초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비밀스러운 처방

동인비 제품 \$100 이상 구입시
동인비 용량정 오일정 무료증정

Free Gift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결제후 24시간 내 배송이 가능하며,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다주토도 배송 해드립니다.

국악을 감각적 현대화 하면 어떤 모습?

KKM 프로젝트 첫 콘서트 21일 케임브리지 'The Lily Pad'서 열려
보스톤 지역의 한인, 현지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악 렉처 콘서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음악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연주와 강의를 합친 "렉처 콘서트"가 4월 21일 오후 7시 30분 케임브리지 소재 더 릴리 패드(The Lily Pad)에서 열린다.

청년 음악가 단체, 'KKM 프로젝트'가 개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국악 창작곡, 즉흥연주, 가야금 버전의 바흐 파르티타 등, 다양한 연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야금 연주자 김도연, 작곡가 홍재현이 쉬운 강의로 관중들의 국악 이해를 돕는다. 또한 관중과 함께하는 즉흥연주, 질의 응답 등을 포함하여 한국음악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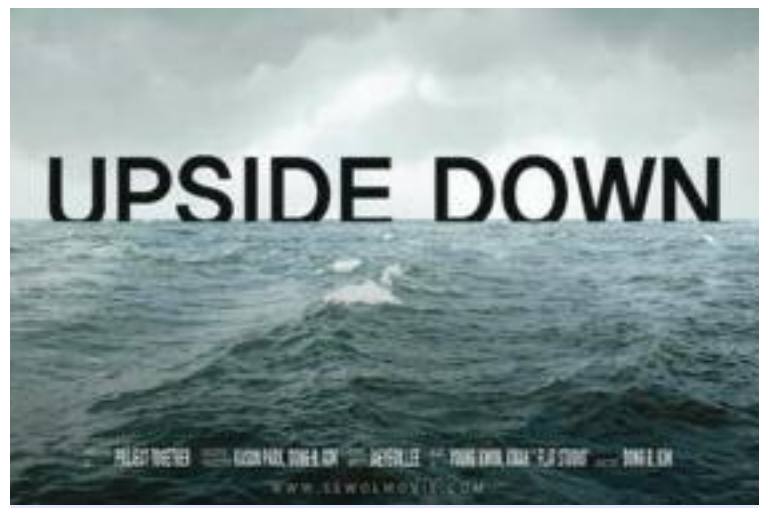
관중과 함께하는 즉흥연주 코너는 가야금 연주자 김도연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국악의 장단과 조를 배운 후 모든 관중이 함께 연주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KKM 프로젝트는 공연 관람시 자신의 악기, 혹은 타악기로써 두드릴 물건 등을 지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KKM 프로젝트의 첫 콘서트는 소속 뮤지션이자 디렉터인 작곡가



홍재현의 웹사이트 www.jaehyun-hong.com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세월호 관련 다큐 '업사이드다운' 하버드 상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년전 발생했던 세월호 침몰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업사이드다운>이 15일 금요일 하버드 법대 100호인 파운드 홀에서 무료 상영된다. 업사이드다운은 보스톤 국제영화제에 출품되어서 같은 1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보스톤 소재 브로드웨이 픽처스 엔트 스튜디오에서 상영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2014년 4월 16

일 당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재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룬 영화다. 이를 위해 김 감독은 전문가인 교수들, 변호사들, 언론인들, 활동가 1명, 잠수사 1명, 그리고 정치인 1명을 인터뷰해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에 대해 조명한다.

하버드 대학 상영에는 김동빈 감독이 참석해 관객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시민들의 펀딩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며 영화 제작 시작 당시 김 감독은 노위치 대학 방송통신 전공 4학년이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2016 뉴잉글랜드 과기협 수학경시대회 성황리에 개최

총영사상은 강성훈(11) 군과 주정수(10) 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 25회 2016 뉴잉글랜드 과기협 주최 수학경시대회가 4월 9일 토요일 MIT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약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시험에 응했다.

재미과학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 지부(KSEA-NE)와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 MIT 한인 대학원 학생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과기협 김기수 씨가 전반적인 행사를 총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엄성준 총영사가 참석하여, 과기협 수학 경시 대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재미 과기협 임원들에게 축사를 통해 격려했다. 한순용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남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 한선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회장, 윤미자 보스톤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행사에 참여하여 성적 우수자들을 시상했다.

이 대회는 미주 전역에서 동시에 치러진 재미과학기술자협회 전국 수학경시대회를 겸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경시대회에는 4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이 학생들은 학년별로 60분에서 90분 동안 시험을 치렀다. 모든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참가증과 간식이 제공되었으며, 시상식 후에는 경품 추첨을 통해 수상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즐거움을 주었다.

이날 대회에서 1등 총영사상은 BU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강성훈 군(11학년)과 BBN의 주정수 군(10학년)이 차지했다.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보스톤대학(BU)의 합혜옥 교수가 <코리안 어메리칸의 멘탈붕괴>라는 주제로 카이스트(KAIST)의 이주성 교

수는 <미래사회를 만드는 인재>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행사를 주관한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이현희 회장은 “이 대회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수학 실력을 겨루고 나누는 자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 모두 서로를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인 행사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이 대회는 재미 과학기술자 협회 본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회, 시민협회, 한미 예술협회, 고려대 교우회, 이화여대 동문회, Math Game House, 조진행, 보스톤 코리아, Math-Works, Nuance Communications, Grapevine Times등에서 후원하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수상자들과 시상자들 참가자들이 함께한 장면

학년별 수상자 명단

4th Grade

1st	Andrew Song	Gordon School
2nd	Audrey Chun	Josiah Haynes School
3rd	Hyewon Suh	Pierce
Honor	Yunseol Lee	Pierce

5th Grade

1st	Shane Lee	Carlisle Public School
2nd	Sunjae Kim	Sanborn Elementary
3rd	Alexander Shieh	Homeschool
Honor	Ephram Chun	Josiah Haynes School

6th Grade

1st	Bonjune Koo	St Bernadette School
2nd	June Kim	Wayland Middle School
3rd	Changmin Lee	St Bernadette School
Honor	Jaemoon Lee	Bigelow Middle School

7th Grade

1st	Euhan Kim	Clarke Middle School
2nd	Anthony J. Kim	Fay School
3rd	Kyuhu Lee	Diamond Middle School
Honor	Minjune Kim	Clarke Middle School

8th Grade

1st	Eric Song	Gordon School
2nd	Nathan Yoon	Sharon Middle School
3rd	Hyunjun Ahn	Edith C. Baker
3rd	Noah Choi	Fay School

9th Grade

1st	Katherine Lim	Lexington High School
2nd	Dasol Song	Brookline High School
3rd	Zio Ahn	Holy Name High School
Honor	Eugene Kim	Lexington High School

10th Grade

1st	Jung Soo Chu	Buckingham Browne and Nichols
2nd	Sunmin Lee	Holy Name High School
3rd	Hyun Soo Cho	Taft School
Honor	Janny Myung	SPM

11th Grade

1st	Sunghoon Kang	Boston University Academy
2nd	Morgan Dacivk	Lexinton High School
3rd	Jun Hyuk Jang	Choate Rosemary Hall
Honor	Luke Kim	Algonquin Regional High School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이민 수수료 올해 또 인상할 듯

백악관, USCIS 수수료 조정안 검토
시민권 신청·영주권 갱신 인상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시민권 신청 수수료 등 각종 이민관련 수수료 인상을 목표로 한 새로운 규정이 백악관 예산 관리국(OMB)에 제출됐다.

법률 360(Law360) 웹사이트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일 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 수수료 스케줄'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미주 한국일보의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7월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민서류 수수료가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OMB는 지난해부터

USCIS가 오는 7월부터 이민 수수료를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대부분의 이민 서류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USCIS는 아직까지 이민서류별 구체적인 수수료 조정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수수료 조정안에는 비이민자의 서류처리 수수료뿐 아니라 시민권 신청서 및 이민관련 청원서 수수료 조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USCIS는 늘어나는 예산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수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백악관에 제출한 '수수료 조정안'은 'bostonkorean@hotmail.com

수수료 인상안' 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OMB도 USCIS가 수수료 조정 없이 이민관련 서류들을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어 USCIS의 수수료 인상안을 대체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OMB가 수수료 조정안을 승인하면, 이 조정안은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민관련 수수료(지문 채취비용 제외)는 시민권 신청서(N-400) 595달러, 영주권 카드 갱신(I-90) 365달러, 여행 허가서(I-131) 360달러, 취업이민 청원(I-140) 580달러, 영주권 신청서(I-485) 985달러 등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강대에서 종교학과 교수로 27년동안 제자들을 길러낸 김승혜 데려사 수녀

서강대 김승혜 수녀 특강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강대에서 종교학과 교수로 27년동안 제자들을 길러낸 김승혜 데려사 수녀가 보스톤을 방문, 강연회를 갖는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하는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 성당은 김승혜 수녀를 초청해 이번 4월 15일(금)과 16일(토) 이틀 동안 "동 서양 사상에서 추구하는 종교관의 조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첫날은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화를 통해 "어진 인격과 어진 공동체를 지향하며"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둘째날은 "공자의 천사상에 비추어본 우리 하느님 신앙"과 "도와 하느님 나라"를 통해 도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강의 사이사이 교우들과의 나눔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승혜 수녀는 1965년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까지

15년간 사랑의 씨튼연구원을 이끌었다. 2014년 한국관구 소속 한국인 수녀로는 처음으로 총장에 선출되었다. 1981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4년 하버드 대학교 세계종교연구소에서 연구했다.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27년간 재직하면서 중국 종교, 특히 유교 전통을 연구했다.

저서로는 '종교학의 이해', '원시 유교', '유교의 뿌리를 찾아서', '동아시아 종교 전통과 그리스도교의 만남', '선불교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와 무교',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수도 생활', '한국 신종교와 그리스도교' 외 다수가 있다. 보스톤 한인성당은 정광호 도미니코신부가 주임을 맡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재외한글학교 교사 인증제 올해부터 시작

재외동포재단, 온라인 교육 연수 프로그램 이수하면 인증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올해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한글학교 교사 인증제'란 현지 재외한글학교 교사와 예비 교사들이 재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 명의의 인증서를 받게 되는 제도다.

온라인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장소원 교수와 전영철 교수가 공동책임 맡아 진행하며, 오는 8월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3~4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재단이 운영하는 스타디오코리아(http://study.korean.net)를 통해 제공되던 교사용 수업자료는 물론 최근 한글교육 동향, 교수법 등 교사 교육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1, 2 단계 과정으로 구성된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이런 인증제도는 한글학교 교사 자격 부여 및 인증에 대한 현지 한글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1만5,000여 한글학교 교사들이 기본 소양과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개발함으로써 한글학교 교사로서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한글학교 수업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 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따사로운 봄날씨 반기는 보스톤 4월 문화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이번 달 초에 잠깐 눈이 내려 쌀쌀하긴 했지만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60도를 유지하며 따듯한 봄날씨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날씨가 풀리면서 4월부터 야외 이벤트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날에는 한결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행사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음은 보스톤 코리아에서 주목한 각종 유료 행사들이다.

4월 22일 (금)~4월 24일(일)

팍스 이스트 2016 (Pax East 2016)

게임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보스톤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게임쇼인 '팍스 이스트'를 놓쳐서는 안된다. 팍스 이스트에서는 게임대회, 무료 콘솔, PC 및 보드게임 플레이, 신작 및 개발중인 게임 전시 등 게임과 관련된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2010년에 약 5만명 관객 입장. 2015년에는 빅 피쉬 게임에서 선정한 죽기전에 가보야 할 17개의 괴짜 이벤트 중 하나로 선정된 적이 있다. 올해는 이미 공식 티켓이 매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독자라면 내년을 기대해 보자.

유료입장 : 1일권 \$50, 3일권 \$105
시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30분 (일요일은 오후 7시까지)

주소 : Boston Convention Center, 415 Summer Street, Boston, 02210 (그린라인 프루텐셜 역, 하인즈 컨벤션센터 역)

홈페이지 : <http://east.paxsite.com/>

4월 24일 (일)

재팬 페스티벌 보스톤 (Japan Festival Boston)

일본에 가지 않고도 보스톤에서 일본의 전통 축제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오는 24일 보스톤 커먼에서 개최되는 '재팬 페스티벌 보스톤 (Japan Festival Boston)'에는 작년과 같이 약 3만명의 관객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의 경우 금붕어잡기, 일본 포장마차, 일본 전통 무용 공연 및 문화체험, 일본 애니메이션 코스튬 플레이 이벤트, 일본 초청가수 콘서트 등으로 진행 되었다. 특히 올해는 애니메이션 보스톤을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애니메이션단체들과 협력하여 '코스튬플레이 축제 (Cosplay Matsuri)'가 부가 이벤트로 진행된다. 쇼와 여자대학 보스톤 캠퍼스를 비롯



인도와 네팔의 축제인 홀리(Holi)에서 참가자들은 형형색색의 색깔로 되어있는 가루나 물감을 뿌리며 때를 지어 춤추고 달린다

, 보스톤 각 대학에 있는 일본인 학생회가 대거 참가하고, 일본 항공, 유니크로, 보스톤 레드삭스, 산탠더 은행 등 31개의 기업 및 단체가 후원한다.

무료입장

시간 : 오전 11시-오후 6시

주소 : Boston Common, 02108

홈페이지 : <http://www.japanfestival-boston.org/>

4월 24일(일)

홀리 2016 (Holi 2016)

여러개의 컬러축제가 보스톤의 봄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 제일 처음으로 열리는 BU 인도인 학생회가 주최하는 '홀리 2016' 축제이다.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파랑, 초록, 연분홍, 보라, 노랑 형형색색의 색깔로 되어있는 가루나 물감을 뿌리며 때를 지어 춤추고 달린다. 이 축제는 '홀리(Holi)'라고 불리는 힌두교 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인도와 네팔 등지에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틀간의 축제로, 현지에서는 2월말과 3월 중순사이에 열린다. 행사에서 사용되는 가루는 옷을 변색시키거나 눈이나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옷을 입거나 눈을 보호할 고글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 두개의 이벤트를 놓쳤다면 5월 21일에 예정된 컬러 미 레드 (Color Me Rad @ Seekonk Speedway)나 6월 11일에 예정된 'The Color Run Boston'에 참여하면

된다.

무료입장

시간 : 오후 12시-오후 2시

주소 : Cummington Mall, Boston, 02215 (그린라인 BU 이스트역 뒤편)

질문 buhsc@bu.edu

4월 29일 (금)

보스톤 패션위크 - 오픈 런웨이 (Boston Fashion Week - Open Runway)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는 보스톤 아트 위크 (Art Week)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이에 보스톤 시내 곳곳에서 각종 예술 관련 문화행사나 상설 시장이 열린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오픈 런웨이이다. 오픈 런웨이는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패션쇼로 일반인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젊은 패션 디자이너와 모델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무대를 제공하여 새로운 인재를 지원하고 발굴한다. 모델을 지망하고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신인 디자이너라면 다음 차례의 행사에 지원 해 보는 것도 좋다.

무료 (선착순 입장)

시간 : 오후 12시-오후 1시

주소 : Summer Street Plaza, 1 Summer Street, Boston, MA 02111

홈페이지 : <http://www.artweekboston.org/event/open-runway-2016/>

itshunne@boston.korea.com



작년 보스톤 일본 축제에는 3만명의 관객이 찾았다. 일본식 라면을 먹기 위해 관객들이 긴 줄을 기다리고 있다

오빠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onkers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 (Seong Ae Kim) Realtor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올 봄 보스톤에서 주목할 만한 미술 전시 7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백은세 기자 = 봄을 맞이하며 보스톤 지역의 여러 미술관들에서 많은 전시들이 새로이 열린다. 보스톤 매거진(Boston Magazine)이 소개한 여러 전시 중에 특히 흥미로운 7가지 전시를 발췌하였다.

왈리드 라드 (Walid Raad) 전시

현재 보스톤 현대 미술관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은 레바논의 유명 예술가 왈리드 라드의 작품들을 전시중이다. 북미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라드의 종합 전시로, 그가 지난 25년간 창작한 사진부터 조각, 비디오, 행위 예술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다. 아랍 문화의 영향을 받고 레바논 내전을 경험한 라드는 그의 작품에서 사람들이 역사를 표현하고,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가 어떻게 구별하는지 탐험한다. 특정 날 들엔 라드가 직접 55분간 그의 작품들에 대해 설을 진행한다. 입장료는 일반 성인 \$15, 경로 우대자 \$13, 학생증을 지참한 학생 \$10, 17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무료이다.

기간: 2월 24-5월 30일, 주소: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Boston, 100 northern Ave., Boston, 전화: 617-478-3100, 홈페이지: icasboston.org

아시아 인 암스테르담 (Asia in Amsterdam)

17세기 암스테르담은 세계 교통과 무역의 요지로, 아시아에서 가져 온 각종 호화로운 도자기, 칠기, 직물, 다이아몬드, 향신료 등으로 넘쳐났다. 이 영향으로, 렘브란트 (Rembrandt)나



Walid Raad

얀 스티인 (Jan Steen)과 같은 네덜란드의 예술가 들은 그림에 화려함을 더했고, 도예가들, 직물 디자이너들, 보석 세공인들도 이런 아시안 스타일을 작품에 적극 반영했다. 피바디 에섹스 미술관 (Peabody Essex Museum)은 아시아와 네덜란드의 이러한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작품 들을 총 170점 전시 중이다. 입장료는 일반 성인 \$18, 경로 우대자 \$15, 학생증을 지참한 학생 \$10 이고, 16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세일럼 (Salem) 거주자는 무료이다. 또, 오후 5시 이후에 방문하면 \$10이다.

기간: 2월 27일-6월 5일, 주소: Peabody Essex Museum, 161 Essex Street, Salem, 전화번호: 978-745-9500, 홈페이지: pe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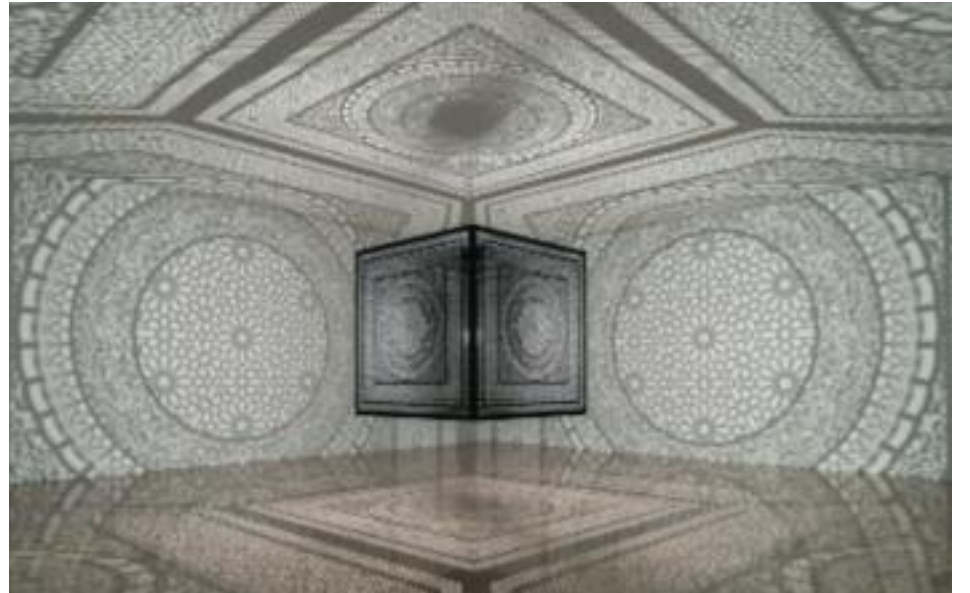
인터섹션 (Intersections)

피바디 에섹스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이 전시에서는 파키스탄계 예술가인 아닐라 쿠와움 (Anila Quayyum)의 정육면체 모양의 철제 랜턴을 볼 수 있다. 방 하나를 가득 채우는 이 거대한 큐브는 이슬람의 전통적 건축 모티프에서 영감을 받았고, 작가의 어울림과 공존에 대한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

기간: 2월 27일-6월 5일, 주소: Peabody Essex Museum, 161 Essex Street, Salem, 전화: 978-745-9500, 홈페이지: pem.org

#테크스타일 (#Techstyle)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패션 산업은 많은 변화를 맞이했다. 보스톤 미술관 (Museum of Fine Arts Boston)에서 진행하는 #테크스타일 (#Techstyle) 전시는 디자인 과정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의상간의 변화를 통해 패션과 기술의 동반 상승 효과를 보여준다. 디지털로 인쇄된 알렉산더 맥퀸 (Alexander McQueen)의 드레스가 그 예이다. 입장료는 성인 \$25, 65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 \$23, 학생증을 지참한 학생 \$23, 6세 미만의 아동은 무료이고, 7세부터 17세까지



Intersection (출처: http://www.ricegallery.org/anila-agma/)

의 청소년은 주중 오후 3시 이후와 주말, 보스톤 공립학교 휴일에만 무료이고 그 외의 날에는 \$10을 지불해야한다.

기간: 3월 6일-7월 10일, 주소: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전화: 617-267-9300, 홈페이지: mfa.org

아시아의 메가시티 (Megacities Asia)

베이징, 상하이, 뭄바이, 델리, 서울은 인구가 천만이 넘는 일명 아시아의 “메가시티” 들이다. 올 봄부터 여름까지 보스톤 미술관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빠르고 거대한 21세기 도시 생활을 표현한 미술 작품들을 전시한다. 이 전시에서는 유명 예술가뿐만 아니라 신인 예술가들의 일상 용품을 활용한 작품부터 도시 자체를 표현한 작품들까지, 다양한 매체와 도구를 이용한 창작물들을 볼 수 있다.

기간: 4월 3일-7월 17일, 주소: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전화: 617-267-9300, 홈페이지: mfa.org

원숭이의 해 (Year of the Monkey)

원숭이의 해를 맞이하여 보스톤 미술관은 특별 전시를 4월 말 부터 진행하려한다. 이번 전시는 특히 일본 문화에서 반복되어 다뤄지는 영장류에 주목한다.

기간: 4월 30일-10월 10일, 주소: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전화: 617-267-9300, 홈페이지: mfa.org

퍼스트 라이트 (First Light)

테헤란 출신의 예술가 탈라 마다니 (Tala Madani)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역할 (gender roles)을 탐구하고 표현한다. MIT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녀의 소묘, 리넨 캔버스에 그린 유화, 스톱 모션 기술을 이용한 만화 영화 등을 공개한다. MIT 리스트 비주얼 아트 센터 (MIT List Visual Arts Center)에서 열리는 모든 전시는 무료이다.

기간: 5월 20일-7월 17일, 주소: MIT List Visual Arts Center, 전화: 617-253-4680, 홈페이지: listart.mit.edu esbaik@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불면증
- 비염, 천식, 알레르기, 위장, 소화불량, 당뇨
-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심혈관 질환 예방, 심혈관 질환 치료
- 임신 전, 임신 중, 임신 후 건강관리
- 노인 질환 예방, 노인 건강관리
- 기타 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기능성 치료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aenglim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버라이즌 파이오스 보스턴 입성 준비

최대 500Mbps 속도 광케이블 인터넷
6년간 3억 달러 투자, 2017년부터 서비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버라이즌이 보스턴에 광케이블 파이오스(Verizon FiOS) 서비스를 제공한다. 버라이즌은 광케이블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6년에 걸쳐 설비 투자를 할 예정이며, 보스턴 시는 버라이즌과 함께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버라이즌은 3억 달러 규모의 설비 공사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우선적으로 락스버리, 도체스터, 웨스트 락스버리 지역에 파이오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며 순차적으로 하이드 파크, 매타펜, 자메이카 플레인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스턴 시는 성명서를 통해 버라이즌의 광케이블 서비스를 하루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버라이즌에 따르면 보스턴 일부 지역에서는 빠르면 2017년부터 버라이즌 파이오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티 월시 보스턴 시장은 광섬유를 이용한 버라이즌의 빠른 인터넷 네트워크가 스타트업을 비롯해 보스턴 지역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에게 필요하

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 역시 인터넷 서비스의 선택이 다양해지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시 시장은 “보스턴은 현재 갖추어진 인프라가 지원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광섬유 네트워크 시스템은 우리를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며 “버라이즌이 보스턴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 고 밝혔다.

버라이즌에 따르면 보스턴에 새로 도입되는 파이오스 인터넷 서비스는 최대 초당 500메가비트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보스턴 글로브가 올해 초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보스턴 지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초당 15메가비트다. 현재 보스턴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캐스트 인터넷의 최대 속도는 초당 100메가비트다.

밥 머지 버라이즌 무선 네트워크 사업 사장은 보스턴 지역에 하이테크 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광섬유 인터넷 설비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버라이즌 파이오스 서비스는 낙후된 보스턴 인터넷 인프라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마이크 패스트리의 카놀리를 서머빌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

마이크 패스트리 3호점 서머빌에 오픈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노스 엔드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마이크 패스트리(Mike's Pastry)가 서머빌의 어셈블리 로우에 3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보스턴을 방문한 사람은 꼭 먹어봐야 한다는 마이크 패스트리의 카놀리를 서머빌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이크 패스트리의 안젤로 파파 사장은 “우리는 홈메이드 스타일의 수제 카놀리와 여러 종류의 패스트리를 어셈블리 로우에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흥

분해 있다” 고 밝혔다. 파파 사장은 마이크 패스트리 3호점이 어셈블리 로우에서 2017년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패스트리는 2014년에 하버드 스퀘어에 2호점을 열었다. 어셈블리 로우에서 문을 열 마이크 패스트리 3호점은 파트너스 헬스케어 빌딩 1층에 10만 스퀘어 피트 규모로 들어선다. 또한 마이크 패스트리 3호점은 전철 오렌지라인 정류장에서도 쉽게 걸어가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jsi@bostonkorea.com

JEI 재능교육

SUMMER 2016

PREP COURSE

이전 여름,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JEI **Math**

JEI **English**

2달간의 긴 여름방학, 재능교육에서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다음 학년과 동일하게 다룹니다.

Java의 신!

Sang Shin 강사와 함께하는 여름 Java 강좌 일정

weekdays, 9am-noon "초급반" 일요일
초급반 Jr. High High 2PM - 7PM (8월)
중급반 AP prep. for High School 11am - 1PM (8월)
중급반 AP prep. for High School 11am - 1PM (8월)
문의: 781-348-0878

FREE

The registration fee with us is \$0!

JEI

Learning Centers®
jellolearning.com

JEI of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8
TEL: 781.348.0878
EMAIL: burlington@jellolearning.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주택.펀도.사업체.건물.투자

617.290.0623

Stevenson@newstarrealty.com
Son2223@gmail.com
Bostonnewstarrealty.com

주내 33개 수돗물 공급지역 납 기준 정부기준 초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6만4천명 이상의 매사추세츠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33개 지역의 수돗물시스템이 지난 3년간 최소 한번은 연방 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민영 수돗물 공급시스템이며 비교적 작은 인구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반면 이중에는 몰든, 윈드럽, 첼시, 말보로, 그리고 뉴베드포드 등 일부 타운 수돗물이 납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있다. 이들 타운의 주민만 해도 25만2천명이다.

이외 수돗물이 납기준을 초과한 곳은 러셀과 같은 작은 마을이며 웨일스 초등학교, 카버 중학교, 플립톤 소재 데닛초등학교, 그리고 스토우의 타운홀 빌딩 등이다.

몰든(Malden, MA)의 경우 지난 1992년 이후 3분의 2정도의 샘플링에서 연방 기준치인 10억분의 15파트 기준을 넘겼다. 몰든 시는 24번이나 제한을 넘겼으며 지난 2014년 19.7파트를 기록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윈스랍(Winthrop, MA)도 지난 1992년 이후 샘플링의 3분의 2인 24번이나 연방기준치를 초과했다. 지난 2013년에는 10억분의 17.4파트로 기준치를 넘긴 게 마지막이었다.

첼시는 1992년 이래 절반 정도인 12번 기준을 초과했으며 마지막으로 초과한 것은 지난 2013년으로 무려 26.5파트였다.

몰든 시 부엔지니어인 게리 스테드는 시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문제인 곳은 대형수도관에

서 각지역으로 연결하는 파이프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몰든시는 약 6,280개의 작은 수도관이 납기준 초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에 절반 이상인 3,575개의 수도관이 교체됐다. 게리 스테드는 최종 목표는 모든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몰든은 과거 납으로 된 수도관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시절에 주로 주택들이 건축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스톤 시는 지난 2013년 이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가장 최근인 2014년 샘플링에서 10억분의 11.4파트를 기록했다. 우스터와 스프링필드 또한 지난 3년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몰든과 윈스랍 그리고 첼시는 모두 매사추세츠 수자원공사(Massachusetts Water Resources Authority)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매사추세츠

수자원공사는 보스톤 광역시 타운들에게 도매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대변인은 수돗물은 납을 함유하지 않고 있으며 각 타운으로 물을 운반하는 수도관은 콘크리트, 철 또는 철강이어서 납을 함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996년 매사추세츠 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의 PH(?)를 조절하기 위해 염화카보네이트와 카본 디옥사이드를 첨가해왔다. 이는 수돗물이 수도관으로부터 납성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은 지난 주 보스톤 주민들에게 납 수도관을 교체하는 프로그램의 연장을 발표했다. 이프로그램을 통해 보스톤에서는 지난 2005년 이래 총 1391 납수도관을 교체했다.

hsb@bostonkorea.com



2006년 첼시 이스턴에비뉴의 한 수도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보스톤칼리지 청소부 5자녀 모두 보스톤칼리지 졸업시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칼리지(BC)에서 15년간 야간 청소일을 해왔던 60대 청소부의 5자녀가 모두 보스톤칼리지를 졸업하게 됐다고 보스톤글로벌가 9일 보도했다.

월담에 거주하는 프레드 보투어(62)씨의 막내딸 엘리사는 올 5월달 보스톤칼리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를 받고 졸업한다. 보투어씨의 나머지 4자녀 에이미, 존, 마이클, 토마스는 모두가 이미 보스톤칼리지를 졸업한 동문이다.

보스톤칼리지 랍삼 시어터의 야간 청소부 보투어씨는 15년간 천직인양 청소일을 해왔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일을 시작해 세면대를 닦고, 변기를 청소하며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낸다. 빗자루와 마대자루 그리고 각종 세정제들을 담은 카트를 밀며 복도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렇게 일하며 그는 연 6만불을 벌어들였다.

한국의 청소 용역 아주머니를 떠올리면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정도 벌이로 5자녀를 고액 사립학교인 보스톤칼리지 졸업을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비만도 연 6만여불이 훌쩍 뛰어 넘으니 말이다.

비결은 학교의 전폭적인 혜택이었다. 다섯자녀 모두 학비(Tuition)를 면제 받았다. 이로써 총 \$66,000에 달하는 학비중 \$51,000을 절약하게 됐다. 또한 장학금을 수여 받아 1년당 \$3000에 학교를

밤 일하는 보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자녀는 모두 보스톤칼리지의 기숙사에서 생활했었는데 때론 한밤중 일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들리기도 했다. 지난 2009년 졸업해 웰스파고에서 모게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은 2학년 파티가 끝난후 친구들과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보투어씨는 빗자루와 먼지떨이를 들고 그들을 맞았다.

마이클은 "내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는게 내가 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된 이유 중의 하나야"라고 말했고 친구들은 감동해서 아버지를 포옹했었다고 말했다.

보투어씨는 다섯자녀의 합격 편지를 모두 액자로 만들어 걸어 두었다. 큰 딸이 처음으로 보스톤칼리지에 입학하기를 받았을 때는 가족이 모두 울기도 했었다. 막내 엘리사가 합격했을 때는 모든 가족이 보스톤칼리지 옷을 입고 막내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보스톤 칼리지 대변인은 보스톤글로벌와의 인터뷰에서 "입학금 할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단 이들이 정규적인 입학시험절차를 거쳐 합격한 경우에만 주어졌다. 한마디로 모두 충분히 똑똑한 이들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뉴튼에 위치하고 있는 보스톤칼리지는 뉴스위크 종합대학 순위에서 2016년 30위를 기록했다. 팀스태가 27위였고, 브렌다이스가 34위 보스톤대학(BU)이 41위였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글로벌수령**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매년에도 New Star Realty의 게너럴이다. 10년간 보스톤 지역 최고의 실적을 올린 부동산 전문가(MBA)를 대표로 이끌고 BOSTON-CAMBRIDGE 지역 10개 이상 팔았고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업률 3대 높은 시에는 10% 이상의 리스 서비스를 운영할 경험을 바탕으로 최우려 고객에게 최가치 서비스 제공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6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50-4996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arengon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2014년 뉴스위크 부동산 대우 권제 3등
 2016년 뉴스위크 부동산 대우 권제 2등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inachoi@newstarrealty.com, peterju@newstarrealty.com

"공화 중재전대시 크루즈 2차 투표서 트럼프에 역전승"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중재 전당대회 형식으로 치러질 경우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이 도널드 트럼프를 2차 투표에서 물리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3일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경선 레이스에서 최종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1237명)을 자력으로 확보하지 못해 7월 경쟁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결국 크루즈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공화당 경선 레이스는 2가지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트럼프가 7월 전당대회 전 대의원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까'와 '그러지 못할 경우 크루즈가 2차 투표에서 '역전승'할 만큼 충분한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부다.

최근 위스콘신주 등 경선에서 잇따라 크루즈에 참패한 트럼프는 전당대회 전까지 자력으로 1237명을 확보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대의원 수에서 트럼프에 한참 밀리고 있는 크루즈는 그 가능성이 더욱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가 트럼프에게 역전패를 안길 수 있는 이유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선언한 대의원들도 투표가 2차, 3차로 넘어가면 규정에서 풀려나 원하는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비선언 대의원 (unpledged delegate)은 전체 2472명의 선언·비선언 대의원 중 106명, 약 5%에 달한다. 따라서 트럼프가 과반(1237명)에서 100명 내외로 부족한 상

황이라면 비선언 대의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1차 투표에서 지명이 확정되는데 이를 일단 '경쟁(contested) 전당대회'라고 부른다.

만약 1차 투표 후에도 트럼프가 지명되지 않을 경우 2차 투표로 넘어간다. 이때 전체 대의원의 약 60%에 달하는 31개주 대의원 1800명 이상이 프리 에이전트(free agent)가 된다. 즉 지역구 표결과 무관하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3차 투표가 진행될 경우에는 전체 대의원의 약 80%가 프리 에이전트가 된다. 과반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투표가 계속 진행될수록 프리 에이전트가 되는 대의원은 점점 더 많아진다.

크루즈는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공화당 유대인연맹(RJC)과 만난 자리에서 "경쟁 전당대회는 주민들이 선택한 대의원중 대부분을 (나와 트럼프 중) 누가 가져가게 되느냐를 알

게 되는 자리"라며 "트럼프는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가져가고 그 이후 (2차, 3차) 투표부터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있는 모습을 보였다.

워싱턴포스트(WP)의 자체분석 결과 크루즈는 2차 투표에서 130~170표를 더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트럼프의 승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크루즈는 이번 경선 레이스에서 자신이 패배한 주의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약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선레이스에서 중도하차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이 확보한 대의원 171명 중 일부도 2차 투표에서 크루즈에게 넘어갈 것"이며 "루비오는 반트럼프 움직임에 기여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lchung@news1.kr



미국 공화당 경선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왼쪽)와 테드 크루즈



제프 머클리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오리건)

샌더스, 첫 상원의원 지지 확보... "미국 더 공정해지길..."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민주당에서 대선도전에 나선 경선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이 처음으로 상원의원 지지를 확보했다.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오리건)은 13일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면에 기고한 '나는 왜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라가 직면한 문제, 그리고 내 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내 동료 버니 샌더스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첫 상원의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머클리 의원은 "대다수의 중산층 미국인들은 수십년 전에 비해 더 적은 임금을 받고 더 오래 일한다. 그러면서 주택과 건강보험, 대학 비용은 잔인하게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클리 의원은 "미국이 40년 전보다 덜 부유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문제는 일부 극소수에게 부를 몰아주고 나머지 다수는 생계를 위해 허덕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제에 있다"고 비판했다.

머클리 의원은 "경제력은 점점 더 집중되고 정치력도 마찬가지로

라면서 "버니 샌더스야말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을 과감하고 치열하게 부르짚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의 리더십으로 미국은 더 공정하고 풍요로워졌지만 차기 행정부가 가야 할 길은 멀고, 우리는 절박함, 더 큰 야망, 현상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샌더스가 가진 무역협정, 화석연료, 금융개혁 등 수많은 금융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언급하며 "우리는 우리 경제와 정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버니 샌더스는 헌법 첫 문구 '위 더 피플'로서의 미국을 대표할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샌더스는 1981~1989년 벌링턴 시장을 거쳐 1991~2007년 하원의원을 지냈으며 2007년 상원에 입성했다. 그러나 샌더스는 지금까지 다른 상원의원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상원의원 최소 4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yeoulim@news1.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ehoo.com





Eileen Park(아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미 인권보고 "한국 국정교과서, 학술의 자유 우려"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국무부는 13일 한국의 국정교과서 문 제와 관련 학술의 자유에 대한 우려 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독재 정권이 엄격한 통치를 계속하고 있으 며 주민들은 평화적으로 정부를 선택 할 능력이 없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문 제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부의 해 석과 명예훼손법, 언론과 표현의 자 유를 제한하는 다른 법률, 그리고 인 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복무 거부 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감"을 꼽았다.

또한 "일부 관료들의 부패와 포괄 적 차별금지법 부재, 성폭력 및 가정 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를 비 롯해 탈북자, 소수인종, 성적 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 더), 에이즈 환자 외국인에 대한 사회 적 차별, 결사와 집회의 자유 등 근로 자의 권리 제한" 등도 문제점으로 지 목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정교과서 문 제가 처음으로 언급됐다.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에 대해 정 부가 출자한 국사편찬위원회가 승인 한 역사책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계획 을 발표했다"며 "이로 인해 2010년 교 육부가 승인한 다양한 교과서들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한 학교들의 권리가 없 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교육부의 계획을 막기 위해 서울 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학술의 자유와 문화적 행사를 특별히 겨냥한 정부의 규제는 없었다"며 "다만 한국 역사교과서를

선택하기 위한 중·고등학교의 권리 를 끝내려는 정부의 계획은 학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소개하며 "국민에 대한 엄격한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김씨 일가 가 60년 이상 이끌고 있는 독재국가" 라며 "가장 최근에 열린 2014년 3월 선 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고 밝혔다.

또 "북한의 주민들은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정부는 언론·집회·결사·종교·이동·노동자 인권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 다 방면에 걸쳐 엄격한 통치를 하고 있 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정부가 운용하는 정치범 교도소는 가혹하고 생명에 위협이 되 며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또한 "탈북자들은 정치범 들에 대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임의적 구류, 체포와 고 문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

재판부는 독립적이지도, 공정한 재판 을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국경을 넘는 탈북자 와 근로자들에 대한 인신매매도 있다 는 여성 피해자들의 보고도 있었다" 며 "대규모 동원과 재교육 체계의 일 환으로 강제노동이 국내적으로 시행 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특히 고용계약을 맺고 외 국에 나간 근로자들도 강제노동에 직 면해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해외 근로자로 일하고 있 는 북한 주민을 5만~6만명으로 추정 하며 "이들은 강제노동의 상황에 직 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에 따 르면 해외에 고용계약을 맺고 나가 있는 북한 주민들은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집중되었으며 이밖에 알제리, 앙골라, 캄보디아, 적도기니, 리비아, 말레이시아 등에도 나가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권 학대 를 저지른 관료들에 대한 처벌을 하 지 않고 있다. (관료들에 대한) 불처 벌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lchung@news1.kr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미국 오클라호마 쿠싱 소재 원유저장 탱크

WTI 시소장세 끝 이틀째 하락... IEA 보고서의 '양면성'

(뉴욕 로이터=뉴스1) 장안나 기 자 = 14일 서부텍사스원유(WTI) 가 이틀째 하락했다. 국제에너지 기구(IEA)의 월간 보고서에 호재 와 악재가 섞인 가운데 시소장세 가 이어졌다. 주요 산유국 회의를 꼭 3일 앞두고 생산동결에 대한 기 대감과 회의감이 엇갈린 점도 시 장이 방향성을 찾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서 WTI 5월물은 전장 대비 26센 트(0.6%) 하락한 41.50달러를 기 록했다. 장 초반 미국 물가의 부진 으로 달러가 한때 약세로 돌아서 자 42.16달러까지 올랐다가, 되떨 어져 등락을 거듭했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원 유소비 증가분 전망치는 기존보 다 소폭 하향한 일평균 116만배럴 에 그쳤다. 지난해 원유소비가 일 평균 180만배럴 늘었던 것과 비교 해 크게 둔화된 수치이다. IEA는 다만 "미국의 셰일오일 감산이 속 도를 내고 있다는 신호들이 포착

됐다"며 석유수출국기구(OPEC) 이의 산유국들의 생산이 올해 일 평균 70만배럴 줄어든 것이라고 내다봤다.

IEA는 또 이번 주말 산유국 회 의에서 생산 동결이 합의되더라 도 세계 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 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말까지 글로벌 원유 생산량 이 소비보다 많을 것이라며 "감산 이 아니라 동결이 합의된다면 원 유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IEA는 밝혔다.

산유국 회의가 구속력 있는 약 속을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닐 것이 라는 러시아 에너지장관의 발언 도 보태졌다. 알렉산더 노박 장관 은 모스크바에서 에너지 애널리 스트들을 대상으로 열린 한 비공 개 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자제한 이행약속이 담겨 있지 않은 느슨 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 했다.

subway@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애플·GE 등 미 50대 기업 1600여조 자산 해외 은닉"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애플과 월마트,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미국의 50개 대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1조4000억달러(약 1617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숨겨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상 최대 조세회피 혐의 폭로 '파나마 페이퍼' 사태에 이어 세계 최정상 정·재계 인사들의 은닉자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이날 '정상이 무너졌다'(Broken at the Top)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 대기업 50개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역외 조세회피처에 1608개에 달하는 자회사를 세워 은밀히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대 IT기업 애플은 3개 역외 자회사를 설립해 1810억달러(약 209조원)의 자산을 숨겨두고 있으며, GE는 조세피난처에 무려 118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1190억달러(약 137조원)의 자산을 은닉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조세회피 의혹의 대상이 됐다. MS의 은닉자산 규모는 1080억달러(약 125조원)에

달했다. 그외에도 피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엑스모빌 등이 10대 조세회피 회사 명단에 포함됐다.

옥스팜에 따르면 1조4000억달러는 이들 50개 기업이 2008~2014년 미국에 낸 세금 1조달러와 맞먹는 규모다. 이들은 자산을 은닉을 통해 본래 받아야 할 평균기업세 35%가 아닌 26.5%의 세율을 적용받아 4조달러의 세금감면 효과를 누렸다.

특히 이들은 같은 기간 연방대출, 구제금융 등으로 11조2000억달러의 지원 특혜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옥스팜과 국제투명성 등 비정부기구(NGO) 시위대가 12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위원회 건물 앞에서 역외기업 고객 흥해를 내고 있다

옥스팜은 50개 기업이 2008~2014년 미 정부에 로비한 금액은 26억달러로, 로비에 투입한 1달러당 130달러의 세금 우대, 4000달러의 연방대출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옥스팜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와 경제성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2012년에도 미국 기업이 버뮤다에 800억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쌓아두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yeoulim@news1.kr



벤처기업 재벌이자 파커 재단의 셀 파커(36) 이사장

파커 냅스터 창업자, 암 치료 연구 기금 2890억 쾌척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벤처기업 재벌이자 파커 재단의 셀 파커(36) 이사장이 암면역요법 연구 기금으로 2억5000만달러(약 2890억원)를 기부했다고 AF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파커 이사장은 이 기금을 통해 '암면역요법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미국의 암 연구소 6군데와 공동으로 신체 면역체계를 이용해 암과 싸우는 방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커 이사장은 "우리는 암 연구에서 변화의 순간에 있다"며 "지금은 암면역요법의 독특한 잠재력을 극대화해 모든 암을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바꿔 수많은 생


명을 구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기금과 새로운 모델의 창출을 통해 현재 연구의 진척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커 연구소는 소속 과학자들과 30곳 이상의 기업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보급하고 보다 신속하게 환자들을 치료할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파커 이사장은 페이스북의 투자자이자 초대 회장이며 음악과 일 공유 프로그램인 냅스터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

acenes@news1.kr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p>Somerville 5 Family \$ 999,900 294년 세집, 주거 면적 3072 sq. ft. 현대화되어 50년 관입, Quaker Dining, Hard oak floors, granite counter, stainless steel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unit laundry, 광택이 있는 바닥.</p>	 <p>Brookline 2 Family \$ 1,100,000 Tax-35, 3BR, 주거 면적 2383 sq. ft., 대지 면적 4812 sq. ft., 멋진 학교, 잘 관리된 정원, Green Key D 등급, 2차로 주차, 위치, 좋은 건물, 5 year Roof, 현대화된 heating system, 창문</p>	 <p>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지붕이 있는 2층 수집 약 95,000, 대지 면적 8595 sq. ft., 년 Tax \$6834</p>	 <p>Newton \$1,200,000 2가구집주, 연수집 \$845,000, 대지 면적 22,200 sq. ft., 현대화된 창문, 위치, 양면 도로, 연도하기 좋은 위치(T 근처), 보스톤힐리지</p>	 <p>Newton \$1,999,000 2013년 세집, 최고 학교, 주거 면적 5887 sq. ft., 대지 면적 10,990 sq. ft., 2차, 화장실 5개, Granite B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p>
 <p>Newton \$999,000 2013년 세집, 양 4차 화장실 3개, 멋진 학교, 보기도 좋은 가격, 주거 면적 3890 sq. ft., 대지 면적 700 sq. 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p>	 <p>Reading \$ 385,000 2014년 세 집, 양면, 멋진 학교, 편리한 교통, 연도된 보드 지붕, 대지 면적, 양면, 화장실 2개, 주거 면적 1300 sq. ft., 30년 된 4차로 주차, 95 고속도로 근처, Garage Parking</p>	 <p>Burlington \$ 589,000 2013년 세 집, 양면,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 sq. ft., 대지 면적 1075 sq. ft., Hardwood floors</p>	 <p>Boston Fenway \$ 364,000 양 1차, 화장실 2개, 주거 면적 678 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 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p>	 <p>Winchester \$1,290,000 2013년 세 집 최고의 학교 양면 화장실 4.5개, 주거 면적 4000 sq. ft., 대지 면적 1754 sq. ft., 이후 바닥, 최고의 학교, 편리한 교통</p>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총선 결과에 뒤숭숭한 청... '여 붕괴 책임론'에 불편함 역력

청 수석비서관회의서 선거 결과 논의... 박 대통령, 정국 운영 구상 밝히나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청와대는 20대 총선 다음날인 14일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하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청와대는 2000년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총선 결과와 관련해 이날 오전 두 문장의 짝막한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 당일인 전날(13일) 저녁 사전 투표와 개표 결과 윤곽이 드러난 상황에서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최종 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이날 오전까지 고심한 끝에 위와 같은 입장을 내놨지만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주

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한 발언과 흡사한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이보다 앞서 청와대 참모진은 이날 오전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선거 결과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이런 때일 수록 행동을 조심하며 업무를 하자는 당부가 나왔고,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신 있게 일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혁신 3개년 개혁과 4대(공공·금융·노동·교육) 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라는 집권 4년차 목표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청와대 경내에 머물렀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조만간 정국 운영 방향을 밝힐 것이라 전망도 제기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22개월 동안 레임덕 방지가 최우선 과제다. 여기에는 새누리당의 제1당 지위 유지를 위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나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는 국민의당 혹은 제1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과의 협치 여부, 대국민 여론전 등이 고민거리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 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 친박(親박근혜)계를 필두로 한 새누리당 공천

과동 등이 지목되면서 청와대 인적 쇄신은 물론 개각 전망까지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박근혜 정부의 창업 공신인 신동철 청와대 정부비서관의 사의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는 신 비서관의 사의 표명이 총선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총선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진화했지만 청와대 안팎에

서는 현기환 청와대 정부수석 등 정무라인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선거 책임론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는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girin@news1.kr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칼린)




617-981-1542


Umi Cho (추 우미)



508-641-8924



LEXINGTON
... \$ 2,985,000



WAYLAND
... \$ 1,825,000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APR. 15 - APR. 21, 2016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Korean Toast. Better than the french kind.

Cream and fruit with a nutty finish. So easy, make it today.

H마트와 함께 만드는 달콤한 영양간식~ 달콤하고 바삭한 맛이 최고인 허니토스트를 소개합니다!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다양한 모종이 입하되었습니다. 나만의 텃밭을 가꾸어보세요.”

**FRI/SAT/SUN ONLY
15/16/17 ONLY**
Ataulfo Mango
아툴포 망고 박스
\$9.99
box

Fuji Apple Premium
후지 사과 프리미엄
\$1.49
lb.

SOONYEWON Tofu
수녀원 두부
All Varieties/14-16oz.
\$0.99

USDA ORGANIC
PRODUCT OF CANADA
Canadian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캐나다산 유기농 새송이 버섯
\$3.99 8oz./pkg.

Israeli Mandarin(Jaffa)
이스라엘 만다린(자파)
\$1.69
lb.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49
lb.

MEAT |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FRESH Beef Eye Roll
Steak Chuck
목 등심 스테이크
\$7.99
lb.

FRESH Beef Tenderloin
(Whole Piece)
소 안심
\$8.99

FROZEN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냉동 돼지 불고기
\$5.99
lb.

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뼈없는 닭가슴살
\$2.49
lb.

FRESH Marinated Sliced
Pork Single Rib Belly
양념 삼겹살
\$5.99
lb.

FRESH Pork Spare Rib for BBQ
바베크용 돼지갈비
\$3.49
lb.

SMART CARD |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Smart Card Only
NISHIKI Premium
Medium Rice
니시게 쌀
15 lbs.
\$14.99

Smart Card Only
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박스
7.4oz. x 12ea./box
\$14.99

Smart Card Only
SAM SU GAB SAN
Brown Rice
삼수감산 현미
15 lbs.
\$9.99

Smart Card Only
FOOD CELL Vermicelli
푸드셀 궁중당면
1.5 lbs.
2\$5
ea./for

I Heart Children Art Contest

어린이들의 눈을 통해 맑고 재미있는 상상력을 펼쳐보는 그림대회에 초대합니다!

★ Grand Prize ★ \$1,000 Scholarship & Trophy/ Award Certificate (1 person)

Event Date Saturday, May 7, 2016 (11am-4pm)
(Further notice will be given if rainy day)

Theme Announced on the contest day

Where Amphitheater, Overpeck County Park
(40 Fort Lee Road, Leonia, NJ 07604)

Who Kindergart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ers

How to apply Fill out an application at any NY, NJ, PA, BLT Hmart location, Must apply at Hmart before participating.

Application Period April 1, 2016 - April 30, 2016

Fee \$20 (exchanged to Hmart \$20 Gift Certificate at the store)

SEAFOOD |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TONGTONGBAY
Frozen Small Octopus
통통배 상성낙지
1.5 lbs./Whole - pkg.
\$6.99

FROZEN Salted Mackerel
자반 고등어
\$3.99
lb.

FROZEN SUHYUP Saifin Sandfish
수협 냉동 도루묵
\$4.99
lb.

FROZEN 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우나기
6oz./pkg.
\$4.99

FROZEN Head-On Tiger Shrimp
머리있는 타이거새우
5-7's
\$17.99
lb.

FRESH Bronzini
브론지니
\$5.99
lb.

농심 짜왕/맛짱뽕
NONGSHIM Zha Wang/
Champong Noodle Soup
561.0z.
\$6.99 4.7oz. x 4ea./pkg.

SHIRANUKI 100% Pure Sesame Oil
사라기쿠 참기름
561.0z.
\$9.99

HAIOREUM Canned Bai Top Shell
해오름 굴뱅이
14.1oz.
\$4.99

TOEKWANG FOODS Super Grain Plus Grain Powder
수퍼곡물 플러스 미숫가루
1.98 lbs.
\$5.99

BEKSUL Fine Salt
백설 핏소금
6.61 lbs.
\$5.99

01 Korean Sweet Seeds Pancake Mix
큐원 씨앗호떡 믹스
12.69oz.
\$3.99

AJINOMOTO Dipping Sauce Trempetto
아지노모토 디핑소스 All Varieties/ 296ml
2\$5

BONELTI Pure Grapeseed Oil
보네티 포도씨유
341.0z.
\$4.99

네추럴 가든 생강차
NATURAL GARDEN 100% Natural Ginger Tea
Original - 8.9oz./with Honey - 5.9oz.
811.0z. x 12cans/box
\$1.99

PALDO Rice Punch Gift Box
팔도 비빔밥 선물박스
\$6.99

해오름 알로에 베라 드링크
HAIOREUM Aloe Vera Drink
Pomegranate/ Kiwi/Mango 500ml
2\$1

MAMISON Rubber Gloves
마미손 고무장갑 Large - Pair
\$1.69

한마음 냉온 찜질팩
ONE MIND CARE Loess Formentation Pack
Hot/Cold/XL - ea.
\$7.99 \$12.99

POPCORNERS Popped Corn Chips All Varieties/5oz.
팝콘너스 콘칩
\$0.99

KOTO Elec. Shabu Shabu Pot
고토 전기 전골 냄비
XJ-12202/ea.
\$32.99 \$46.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MART BURLINGTON STORE :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8am - 9pm / Fri - Sat: 8am - 10pm

122석 중 새누리 35곳, 더민주 82곳 승리...여 1988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

▶▶1면에 이어서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훌쩍 넘긴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존재감을 극대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도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야권분열=패배'라는 공식도 희석됐다는 분석이다.

◇참패 새누리 패닉 상태, 극심한 내용 예상

새누리당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들이 조기 복당을 해도 과반이 안 되는 완전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조기 레임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심판론'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정권 심판론'의 역풍을 맞았다.

이에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박근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던 법안들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혁법은 쉬운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비정규직만 양산할 우려가 있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

공천을 막장드라마로 만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진박감별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경환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대표가 총선 결과에 상관 없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만큼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해 졌다.

특히 이번 전대는 2017년 대선을 관리할 지도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친박, 비박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다.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혈투가 예상된다.

친박계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된다. 하지만 진박감별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이 부담이다. 이주영 의원과 원유철 원내대표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비박계에서는 당장 당권 주자로 내세울 마땅한 인물이 보이지 않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이 복당할 경우 유 의원을 비박계의 '구심점'으로 내세우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다.

친박 진영에서는 그동안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돼도 "복당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의식을 끌어모으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당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20대 총선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책위원회 대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부르짖은 '경제심판론'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먹힌 만큼 앞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함께 김종인 표 경제민주화를 설파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1년 8개월 가량 남은 내년 대선까지 이번 총선 승리를 동력으로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를 영입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였던 만큼 친노 진영에서도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 호남에서 반문 정서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수도권과 부산·경남에서의 약진을 바탕으로 다음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당분간 문 대표는 살아 돌아온 친노 세력에게 당의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호남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 돌풍 국민의당... 수도권으로의 세력 확장은 과제

국민의당은 호남의 우세와 정당투표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을 훌쩍 넘겼다. 녹색 바람을 넘어 녹색 돌풍이다.

국민의당의 대약진은 기존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거대 양당 체제를 깨뜨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각종 쟁점들의 처리 과정에서 때로는 새누리당과, 때로는 더

민주와 협력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을 향한 양당의 구애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당 체제가 정립됐다는 것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19대 국회에 비해서는 원활한 의사일정이 펼쳐질 수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양당 체제가 갖는 극심한 대결 구도가 일정 부분 희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이번 총선의 돌풍을 바탕으로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야권 분열로 인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을 경우 패배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야권 분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과반을 저지하면서 희석이 됐다.

또 야권의 잠재적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원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야권의 확실한 대표 선수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호남당 이미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아직은 수도권에서 세력 확장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따라서 호남을 넘어 전국 정당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정당투표에서 새누리당은 물론 더민주의 표까지 일정 부분 흡수했다는 점에서 외연 확장의 가능성은 보여졌다.

ykjmf@news1.kr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근현 중앙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등 당 지도부가 20대 총선 투표가 종료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 선거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며 침뚫은 표정을 짓고 있다

다. 이렇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에 등을 돌린 민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집권 후반기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눈치를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역시 강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공천을 주도한 친박(親박근혜)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의 여당 지지층에서도 친박계에 대한 거부감이 눈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등 친박계가 주도한 20대 공천 결과는 유승민계와 비박(非박근혜)계에 대한 공천 확실이였다.

계과 갈등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에 등을 돌렸다. 읍소 전략을 폈지만 한 번 떠난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호(號)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선거를 진두지휘한 김무성 대표는 책임론에 휩싸일 전망이다. 당의 공천 파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원내 제1당 도약한 더민주, '호남'과 '친노' 분리 속에 대어공세 강화할 듯

더민주가 이번 총선에서 받아들인 성적표에서 나타난 함의는 '호남'과 '친노'의 분리로 요약된다.

수도권에 출마한 상당수 친노 성향의 후보들이 승리한 데 반해 호남의 상당수 지역을 국민의당에 내주면서 호남 맹주의 자격을 상실했다.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수도권은 '기호 2번 프리미엄'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호남에서는 반문(反 문재인) 정서를 극복하지 못했다.

더민주의 승리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달리해 투표하는 '교차투표'가 큰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지역구 투표는 더민주 후보에게, 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에 하면서 더민주는 약세 예상을 딛고 집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했다.

더민주가 원내 제1당이라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선거를 전면에서 이끈 김종인 비상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당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며 출구조사 결과에 당직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여, 원유철 비대위원장 추대...유승민 등 복당 허용

(서울=뉴스1) 차운주, 이주성 기자 = 제20대 총선에서 완패한 새누리당이 14일 원유철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을 수습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무소속으로 생활한 당선자들의 복당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8시30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원유철 원내대표를 추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상 절차를 밟기 위해 전국위원회를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부족하지만 당이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 당의 총선 패배 이유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 나갈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비대위의 규모, 구성 등에 대해선 "갑작스럽게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서 정리가 안됐다"며 "내일 오전 11시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사퇴를 공식화한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을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했다"며 비대위의 활동기한은 "다음 전당대회까지"라고 말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다른 최고위원들은 동반 총사퇴로 선거 패배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달 말~6월 초 열릴 조기 전당대회 전까지 '원유철 비대위 체제'로 당을 추스른다.

새누리당은 이번주 중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이 추천한 15인의 비대위원에 대한 추진 절차를 밟아 비대위를 띄울 예정이다.

원 원내대표는 자신도 참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리를 고사했

지만 남은 19대 국회에서 노동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법안 처리 동력을 얻기 위해선 원내대표가 적임자라는데 참석자 전원의 동의가 이뤄졌다.

'비상 당권'이 원 원내대표에게 넘어가면서 2014년 7월14일 전당대회로 출범한 '김무성 체제'는 2년 임기를 3달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개혁적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대개방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대구 동구에서 당선된 유승민의 원을 비롯해 막말 과문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무소속 출마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 등이 무난히 복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친박계의 '찍어내기'로 당을

떠난 유 의원, 윤 의원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사실상 전원 복당 허용을 결정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전날 총선에서 122석을 얻어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에 한참 못미치는 여소야대 진영이 짜인 데다 제1당마저 내주면서 한

석 확보가 급한 상황이다.

공천 배제에 탈당, 무소속 출마했던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서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건없이 새누리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acha@news1.kr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우)와 원유철 원내대표(좌)

제1당 약진 '대박' 더민주, 호남민심 회복 난제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3총선에서 123석(지역구 110석·비례대표 13석)으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으로 약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분위기다.

더민주의 전체 지역구 253곳 중 총 122석이 걸려있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만 82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에 사실상 참패하면서 당의 주요기반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더민주의 총 28석이 걸려있는 호남에서 이 개호(전남 담양·합평·영광·장성), 이춘석(전북 익산시갑),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후보 등 단 3명만이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정당으로서의 지위는 굳건해졌지만, '호남민심 회복'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더민주의 오는 1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비대위 구성 논의 등을 계기로 호남민심 회복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일어났던 '비례대표 공천 과동' 당시 비대위원들이 김 대표에게 전원 사표를 낸 가운데 김 대표는 이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비대위에선 호남을 대표하는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는 인사는 역시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으로서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 중앙선대위부위원장, 광주지역 선대위원장 등을 맡아 활약했다. 호남민심에 집중하기 위한 관련 기구가 만들어질 가능성

도 제기된다. 또 비대위는 오는 6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만큼, 이 일정에 맞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남패배를 둘러싼 문재인 전 대표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수도권 및 영남에서 유의미한 승리를 거둔 데에는 문 전 대표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호남패배를 '반문(反문재인)정서'로 돌리면서 문 전 대표의 선거 막판 두 차례의 호남행(行)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줬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표가 호남 방문에서 "호남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정치도 그만두고, 대선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당 내외의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새다.

일단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이날 "호남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한 상태다. 또 다른 한편에선 문 전 대표를 향한 '압박모드'에 반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cho11757@news1.kr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비상대책위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호남석권, 정당득표2위 국민의당...제3당 돌풍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대 총선에서는 '녹색 바람'을 일으키며 총 38석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의 약진이 돋보였다.

호남권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고, 새누리당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정당득표율을 기록한 점 등이 국민의당의 약진을 낳았다.

14일 총선 개표 결과 국민의당 후보는 광주·전북·전남의 지역구 28곳에서 23명이 당선됐다. 호남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노원병)와 김성식 최고위원(관악갑)이 각각 깃발을 꽂아, 국민의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모두 25명이 됐다.

국민의당 전체 정당득표율(26.7%)은 새누리당(33.5%)에 이은 2위로, 3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25.5%)을 제쳤다.

이에 비례대표는 새누리당 17명, 국민의당 13명, 더민주 13명이 당선됐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명실상부하게 원내 교섭단체(현역 의원 20명 이상)를 구성하며 제3당이 됐다.

소선거제 도입 이후 선거를 통해 3당 체제가 유지된 건 1996년 15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의 출현으로 16년 만에 양당 체제가 깨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일으킨 녹색 바람의 진원지는 호남과 수도권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두 권역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모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1위)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2위)에서 높은 정당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이다.

호남에서 당선자가 대거 나온 건 야권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더민주가 아닌 국민의당을 호남의 적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결과에 비춰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2차례에 걸쳐 호남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던 것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편이 많다.

이와 함께 무당층과 정치 무관심층의 적극적인 지지로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정당지지율 2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거둬들이는 대치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했다는 의미다.

이에 국민의당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자당이 야권의 정권교체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 혁파와 3당 체제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었다.

안 대표가 수도권, 천정배 공동대표가 호남 지역구의 선거운동을 전담하는 '투트랙'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의당이 더민주를 향한 야권 표보다는 새누리당의 여론 표를 더 많이 흡수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여당의 경제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여권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론 지지층 흡수는 호남에 의석이 집중돼 '호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의당이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cho84@news1.kr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선거상황판에 당선된 후보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방지, 피로방, 탄력, 밝은 오븐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화장품
컨설팅/교육/도매
홍은희

세월호참사 2주기... 진실규명 위한 재판 여전히 진행중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7년 확정
'구조 소홀', 당시 123정장은 징역 3년... 해경 지휘 라인 책임 못 밝힌 검찰 수사 '비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진실규명 위해 민사소송 제기... 재판 진행 중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는다.

'법의 판단'이 진실을 쫓는 과정의 하나라면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진행된 수사와 재판으로부터 시선을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참사 발생 후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호의무 위반 책임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이준석 선장(71)을 비롯한 사고 책임자들을 법정에서 세웠다.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은 살인죄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세월호를 증·개축해 복원성을 약화시키고 화물과 적재 부실고박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74)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승객들에 대한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로 김경일 당시 해경 123정장(58)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정장 역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초기 구조 실패가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해경 지휘 라인 과 정부의 책임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검찰 수사에 대해 '미흡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참사의 책임을 묻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과 생존 피해자·가족들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해 9월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소송 모두 첫 재판이 열렸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7년

세월호 참사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재판에서 징역 형이 확정됐다. 특히 이 선장에게는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던 이 선장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승객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럼에도 이 선장은 선내대기 명령을 내린 채 침몰 직전까지 아무 조치

도 취하지 않고서 몇몇 선원과 퇴선해 이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선장은 자신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첫 사례가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기관장 박모씨(56) 등 간부급 선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7~12년을 확정하고, 나머지 선원 11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5년을 확정했다.

세월호를 무리하게 개조하고 과적을 지시해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대표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0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씨(62)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확정하는 등 함께 기소된 대부분의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세월호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모씨 등 당시 인천해양항만청 공무원 2명과 장모씨 등 인천해경 공무원 2명도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세월호 경사시험을 부실하게 감독하고 허위검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전모씨에 대한 재판 역시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 '구조 소홀' 책임 123정장 징역 3년... 진도VTS센터장 무죄

세월호 사고 초기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현장 지휘관으로서 초기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세월호와의 교신 유지와 상황 파악을 소홀히하고, 도착 후 승객 퇴선유도 등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관제임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과 직원 등 13명도 법정에서 처했다. 하지만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2부는 같은 날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진도VTS센터장 김모경감(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김 경감을 제외한 12명의 직원들에게는 변칙근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벌금 200만~3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이 관제를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폐쇄회로(CC)TV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해경의 사고 수습 책임과 관련해 범조계 안팎에선 초기 구조 실패가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해경 지휘 라인과 정부의 책임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해경 몇 사람만 법정에서 세우는 데 그친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유병언 일가' 수사는 요란했지만...상당수 '집행유예'

검찰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일가에 직접 칼날을 겨누고 횡령·배임 등 혐의와 관련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자택과 기독교복

음침례회(구원파) 사무실, 경기 안성 금수원 등 구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구원과 신도들은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 수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되도록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2014년 7월 시신으로 발견됐다. 세월호 참사 발생 3개월, 유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2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 등 관계자들을 줄줄이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모그룹 '횡령·배임'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대균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비교적 낮은 형이 확정됐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운자씨(7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송국빈 다판다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는 등 대부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오갑렬 전 체코 대사(62)는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차남 혁기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 진실규명 위한 움직임은 이제 민사소송으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진실을 밝히고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은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 342명은 지난해 9월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생존 피해자와 가족 77명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을 받지 않고 소송을 택했다.

당시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택하게 됐다"며 "가족들

이 국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법원에서 직접 하고, 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뜻"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 후 유가족 측 대리인은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형사사건들의 주장을 정리했고 거기에서 밝혀진 국가의 위법행위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8일 두번째 재판이 열린다.

생존 피해자와 가족들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기한 소송은 지난 11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정부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이 선장과 선원, 화물고박회사 등을 상대로 사고 수습을 위해 먼저 지출한 비용을 돌려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첫 재판에서는 세월호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진행에 따라 국가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와 과실 비율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진행을 지켜보자는 주장이 나왔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은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내부 보고 사항 공개에 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48)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2014년 10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3월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해 2013년 3월~2014년 7월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정보목록과 특수활동비·국외여비 집행내역, 2014년 7월 인건비 외 예산지출 관련 증빙자료는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dandy@news1.kr



세월호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지난 3월28일 열린 세월호 2차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조조정시대'...재정압박으로 몸부림치는 대학들

명지전문대, 정원감축으로 등록금 수입 줄자 전 교직원에게 발전기금 건어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23년이면 약 16만명의 대학 입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학의 재정압박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신입생 감소에 대비해 입학정원을 감축하면서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 데다 몇 년째 등록금 동결기조가 이어지면서 부족해진 수입을 대학 구성원이 나눠 부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명지전문대는 지난 1월 전체 교직원에게 '대학 발전기금 기부(약정)서'가 포함된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명지전문대는 "학교재정상의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전체 교수와 7급 이상의 직원은 400만원, 8·9급 직원은 300만원의 기부금을 약정해 줄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직자들 가운데 처·실장급은 월 20만원, 학부장 등은 월 10만원을 직책비에서 추가 공제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명지전문대는 기부금을 모으는 것 이외에 겸임·계약교수의 임금을 지난해 대비 9% 정도 삭감하고 방학기간에 지급하던 추가수당을 올해부터

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명지전문대가 긴축 재정에 들어간 데에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영향이 작용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이 제한되고, 사실상 정원감축이 강제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명지전문대는 2017학년도까지 정원의 5%에 해당하는 141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입학정원을 감축하면 그만큼 등록금 수입이 줄어든다.

수입은 줄었는데 돈 들어갈 곳은 많다. 내년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피하려면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고 교원을 새로 충원해야 하는 등 계속해서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 관계자는 "명지전문대는 2012년도 9000명에서 지금은 6500명으로 2500명가량의 재학생이 감소한 상태"라며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도 필요해 결국 구성원

이 고통을 분담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2023년까지 우리나라 평

균규모 대학(입학정원 1600명) 100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만큼 대학구조개혁의 칼날을 피하기 위

한 대학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hjkim91@news1.kr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학구성원 4,200여명 투쟁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 나은 봄, 서울설렁탕의 미션, 곡물, 보양, 숙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 617.505.6771 |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MA 02114 | 617.877.6880 | SeoulFoxBoston.com

Salons by JC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영피부 관리와 손발엔 미용전문 복귀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탁 트리트먼트

2017년 1월 8일부터 H-Mart 앞 Middlesex Commons Mall에 위치한 Salons by JC로 이전

남자컷 25불/여자컷 35불/파마 75불 부터
다지깎 130불 부터/개국된 헤어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희 양구경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머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븐 스팀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675 Lowell St. Rm #1 Lexington MA 02420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부



백영주
617-921-6979



주승원
617-780-7839



스티븐 손
617-290-0623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마희경
339-222-1709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단독주택 Single Family



\$529,900
Sharon, MA
4 Beds, 2.5Bath, 2152 sf.
아주 편리한 위치, 좋은 학군
hardwood Floor, Skylight
이현주 401-935-3397



\$529,000
Sharon, MA
3 Beds, 2Baths,
1층에 master Br, 아름다운 부엌
넓은 대지
이현주 401-935-3397



\$650,000
Lexington, MA
3 Beds, 1Bath, 1188sf.
좋은 학군, 편리한 주거환경
넓은 정원과 대지
OT Kim 617-620-8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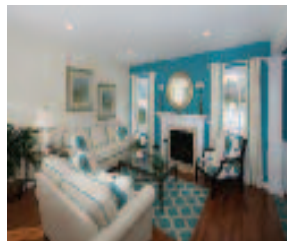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 리 978-806-6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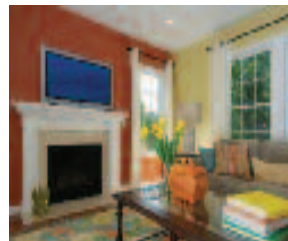
New Construction



\$359,000
Weymouth, MA
3Beds, 1Bath, 1380 sf.
Central A/C, Sky light
이현주 401-935-3397



콘도/타운하우스/싱글 하우스 S.Weymouth, MA
역까지 도보 3분, JFK/Umass까지 3stop, 1-3 Br, \$299,000~
바다 옆에 있는 아름다운 타운에 신축중인 콘도에 처음 입주하세요!
한인담당; 스티븐 손 617-290-0623 이현주 401-935-3397



콘도 Condominium Rental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홀
Anna Jung 617-780-1675



\$210,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 sf.
New 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6064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1,500
Arlington, MA
Fully Furnished Studio,
좋은 교통, 안전한 동네
Hazel Seung 617-895-7676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Gina Choi 978-866-3248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baths, 1579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Apt, Condo Rental
전문 상담
David Kim 781-956-0409
Hazel Seung 617-895-7676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보통 주택 매매 / 상업 부동산 / 투자 부동산 / 렌탈 /
상업 부동산 / 렌탈 / 투자 부동산 / 렌탈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Sara You
617-899-356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Nail Salon	Nail Salon	Full Plant Drycleaner	Full Plant Drycleaner

\$70,000
Dedham, MA
1200sf. 넓은 주차 공간
6 manicure & 4 pedicure stations
Anna Jung 617-780-1675

\$110,000
Cambridge, MA
400sf. Porter sq.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350,000
Reading, MA
최적의 위치, 높은 매상
정년세일
스티븐 손 617-290-0623

\$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 장비
매상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Julie Lee) 401-935-3397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50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97,000
Boston, MA
보스톤 유니버시티 근처
Anna Jung 617-780-1675

\$915,000
Providence, RI
Famous Restaurant w/ Liquor
브라운대학 근처
이현주(Julie Lee) 401-935-3397

Coin Laundry	프렌차이즈	Business Consulting	Commercial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비즈니스 빈자리
비즈니스 셋업 무료 상담
SJ Park 617-304-7001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995,000 Westford, MA Newly set up, Asian food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850,000 REDUCED Westborough, MA Asian Restaurant/Bar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495,000 Boston, MA Alot walk and car traffics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75,000 Waltham, MA 아주 바쁜 큰 길가, 소비도시 Steven Son 617-290-0623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패츠가 드래프트에서 메워야 할 구멍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6 시즌을 준비하는 패트리어츠는 상황이 아주 암울하지는 않다. 비록 디플릿 게이트에 대한 처벌로 2016 드래프트 1라운드 선택권이 없지만 당장 주전급 선수가 없어서 1라운드에서 수혈해야 하는 포지션은 없기 때문이다.

패트리어츠가 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주전 선수 바로 아래에서 백업을 해야 하는 선수들이다. 올해 드래프트를 앞두고 패트리어츠가 드래프트에서 선수들을 선택해야 하는 포지션을 살펴보자.

와이드 리시버

프리 에이전트였던 크리스 호건, 네이트 워싱턴과 계약을 맺었지만 패트리어츠는 드래프트에서 1-2명의 와이드 리시버를 추가로 선택해야 한다. 호건은 분명 잠재력이 있는 선수지만 지금까지 주전이 아닌 훌륭한 백업 리시버였다.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패트리어츠의 패싱 게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는 줄리언 에들먼이다. 지난 시즌 에들먼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때 패트리어츠는 공격의 실마

리를 찾지 못하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패트리어츠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에들먼을 대신할 확실한 백업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코너백

지난 시즌이 시작할 때 가장 불안해 보였던 포지션이 코너백이다. 스타 선수들이 떠나고 젊은 선수들만이 남은 패트리어츠의 코너백은 부실해 보였다. 그러나 말콤 버틀러와 로건 라이언은 코너백에 대한 걱정이 기우였음을 증명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패스 수비를 선보였다.

버틀러와 라이언은 올해도 주전 코너백으로서 기대 이상의 몫을 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뒤를 받쳐줄 선수가 없다. 코너백의 선수층이 얇다는 문제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오피시브 태클

네이크 솔더와 세바스찬 볼머가 부상 없이 건강하다고 가정할 때 오피시브 태클은 2016 시즌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볼머와의 계약이 만료된 2017년이나, 두 선수 중 한 선수라도 부상을 당한다면 패트리어츠의 오피시브 라인



패트리어츠에는 에들먼을 대신할 확실한 백업 리시버가 없다

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린다.

현재 패트리어츠의 3번째 오피시브 태클은 프로 5년차의 베테랑 마르쿠스 캐논이다. 지난해 캐논은 러닝 게임에서는 평균 이상의 모습을 보였지만 패싱 게임에서는 거의 바닥 수준의 기량이 드러났다. 상대팀 패스 러시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쿼터백을 보호하지 못했다. 패트리어츠가 오피시브 태클에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다.

러닝백

르개릿 블린트가 1년 계약으로 패트리어츠에 다시 돌아왔지만 패트리어츠는 러닝백의 선수층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패트리어츠의 러닝백 원투 펀치라 할 수 있는 디온 루이스와 블린트가 올해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무릎 부상에서, 블린트는 엉덩이 부상에서 회복 중에 있다.

제임스 화이트는 지난 시즌 후반에 루이스의 역할을 담당했다. 루이스가 시즌이 시작할 때까지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화이트가 올해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프리 에이전트로 도널드 브라운이 합류했지만 주전 러닝백 2명의 앞날이 모두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층을 더욱 두텁게 다질 필요가 있다.

jsi@bostonkorea.com

[MLB] '가시밭길 자청' 꽃 피워낸 이대호,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서울=뉴스1) 김지예 기자 = "다시 경쟁해야 한다.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좋다."

지난 2월 시애틀 매리너스와 스프링캠프 초청권이 포함된 1년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 돌아온 이대호(34)는 긍정적이었다.

당초 예상했던 메이저리그 보장 계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호는 "메이저 리그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스프링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개막 25인 로스터에 들 수 있고, 나아가 주전까지 꿰찰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나이에 신인으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이대호에 대한 전망은 대다수 비관적이었다.

이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가시밭길을 자청했고, 차츰 꽃길로 바뀌 걸었다.

팀내 유망주였던 헤수스 몬테로, 스테판 로메로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했다. 몬테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떠났고, 로메로는 마이너리그에서 개막전을 맞이했다.

이대호는 스프링캠프에서 눈도장을 받아 개막 25인 로스터에 진입하며 꿩끼오던 메이저리거가 돼 좌타자 애덤 린드의 백업 1루수 자리를 꿰찼다.

그리고 8경기째 만에 시애틀의 역사를 새롭게 써냈다.

이대호는 13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 2-2로 팽팽했던 연장 10회말 2사 1루에서 린드의 대타로 나섰다.

이대호는 상대 투수 제이크 디크먼의 3구째 시속 97마일 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왼쪽 담장을 넘기는 끝내기 홈런을 쏘아올리며 팀의 4-2 승리를 이끌었다. 5연패의 늪에 빠져있던 팀을 건져올린 이 홈런은 이대호의 시즌 2호 홈런이었다.

이대호는 지난 9일 오클랜드전에서 빅리그 데뷔 홈런을 쏘아 올린 뒤 5일 만에 다시 홈런포를 가동했다. 시즌 타율은 0.167에서 0.231로 뛰어올랐다.

2호 홈런은 단순한 홈런이 아니었다.

미국 스포츠매체 ESPN에 따르면 올해만 33세인 이대호는 1950년에 만 35세였던 루크 이스터(당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이후 최고령 신인 끝내기 홈런을 터뜨렸다. 더불어 시애틀 구단 사상 최초로 데뷔 시즌에 대타 끝내기 홈런을 친 선수가 됐다.

앞서 지난 1986년 9월 켈 펠프스, 2013년 6월 켄드리스 모랄레스가 각각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를 상대해 대타 끝내기 홈런을 날린 바 있지만 신인은 이대호가 처음이었다.

또 이대호는 한국과 일본, 미국 프로무대에서 전부 끝내기 안타를 만든 첫 한국 선수가 됐다. 앞서 이대호는 한국에서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던 지난 2002년 · 2006



이대호(34 · 시애틀 매리너스)가 13일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끝내기 투런 홈런을 터뜨려 팀의 4-2 승리를 이끌었다

년 · 2007년에 총 3차례 끝내기 홈런을 터뜨렸고, 일본에서는 지난 2012년 오릭스 버팔로 소속으로 두 차례 끝내기 안타를 때렸다.

미국에서는 한국인 선수 중 4번째로 끝내기 홈런을 때렸다. 지난 2005년 최희섭(당시 LA 다저스)이 한국인 선수 중 가장 먼저 끝내기 홈런을 날렸고 추신수가 2011년, 2013년(당시 신시내티 레즈)에 끝내기 홈런을 쏘아올렸다.

이대호에게 홈런을 내준 디크먼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스트라이크를 먼저 잡고 더 빠른 패스트볼을 던져 승부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대호가 홈런을 때렸다"고 감탄했다.

이대호는 "경기 전 영상을 많이 봤는데

디크먼이 2스트라이크 다음에 빠른 공을 던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확하게 치려고 했는데 방망이 가운데에 공이 맞으면서 홈런이 됐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노림수가 빅리그에서 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시애틀 지역 매체 시애틀 타임즈는 "이대호가 팬들과 언론을 미치게 했다"며 열광했다.

일본 스포츠신문 데일리스포츠는 이대호의 홈런 소식을 보도하며 "만 33세의 고령 신인 이대호가 극적인 2점포를 날려 시애틀의 올 시즌 홈 경기 첫 승을 안겼다"고 말했다.

이대호는 끈기와 노력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hyillily@news1.kr



사업과 집을 지켜 드립니다



“전기비까지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POS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촌: Allston 돼지꿈: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s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 본촌: 20% 절약
- 돼지꿈: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공품향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소개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차귀 케이크
- 국나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Elegy for the Fallen, Light beyond the Abyss

망자를 위한 애가 - 심연 너머에 빛

music and poetry of
 solace and resilience

BACH BLOCH GRANADOS IRINO JUNG KIM MORRIN PIAZZOLLA RACHMANINOFF WHITACRE

Christina Cheon *marimba*
Yumi Bae *cello*
Do Yeon Kim *gayageum*
Chase Morrin *piano*
The Jayu Quartet *ensemble*
Clera Ryu *piano*



4.30.Sat.7 PM

St. Paul's Church, 15 Saint Paul St. Brookline


TICKETS & INQUIRIES www.koreancultureboston.org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정보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경찰서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한국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한국여성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020
리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치 앤 앨버 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간판

문수사	781-224-0670
서문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회천정 골프 레슨	603-401-7990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양미아헤일리치카운셀링	781-769-8670 x6080
임나경심리상담사	508-728-0832
김창근 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뷰티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웨스트보로한국식당에서 일하실 웨이터 및 웨이추레스 구함. T. 508-366-8898

세탁소에서 운전 / 프레스 하실 분 각각 1명 구함. T. 978-806-1881

헤어 & 그레이스 살롱에서 미용사 및 네일텍 구함. (플레밍햄 지역) T. 508-879-7777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NAIL SALON for SALE

I'm looking to sell my nail salon and waxing salon. I'm looking for an owner that has the drive and the experience when they are taking over my salon. This is an excellent prime location and busy in Newton Center.

PLEASE CONTACT: **Khim 978.327.8491**

N[매매]
그린빌 SC에 위치한 식당 매매 합니다 아주 잘 되는 가게 입니다. T. 864-380-5551

N[구인]
플로리다지역 직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JEWELRY MANUFACTURING

Looking for experienced jewelers, wax injectors, mold makers and mold cutters.

Professional Environment Great Pay

PLEASE CONTACT: Roger 774.312.1270 Hracb11@gmail.com

미 육군 지원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

자율 전화하세요 **781.330.6043**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시간이탈자' 감성 추적 스릴러를 즐기는 관람 포인트 3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4월 단 하나의 감성추적 스릴러 '시간이탈자'가 영화를 더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관람 포인트 세 가지를 공개한다.

영화 '시간이탈자'(감독 곽재용)는 결혼을 앞둔 1983년의 남자(조정석 분)와 강력계 형사인 2015년의 남자(이진욱 분)가 우연히 서로의 꿈을 통해 사랑하는 여자(임수정 분)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간절한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담은 감성추적 스릴러다.

1. 1983X2015 두 시대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숨막히는 추적

'시간이탈자'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서로 다른 두 시대를 넘나드는 긴박한 추적을 담고 있다. 1983년의 남자 '지환' 과 2015년의 남자 건우는 우연한 사건으로 꿈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보게 되고, 강력계 형사인 건우를 통해 지환은 자신의 약혼녀인 윤정이 곧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때부터 사랑하는 여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두 남자의 시대를 뛰어넘는 필사의 추적과 사투가 시작된다.

미래의 기록을 통해 사건의 결과는 알 수 있지만 단서가 없어 '누가', '어떻게' 사건을 일으키는 지, 퍼즐 조각을 맞추듯 이어가는 그들의 추적은 보는 이들에게도 숨막히는 긴박감을 선사한다. 탄탄한 구성의 시간 소재 영화를 기다려 온 관객들에게 '시간이탈자'는 맞춤형 영화로 흥미로운 추적 스릴러의 진수를 선사할 것이다.

2. 임수정, 조정석, 이진욱...'시간이탈자'들의 환상 열연!

시사회 공개 후 '시간이탈자'에 쏟아지는 반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배우들의 열연에 관한 찬사다. 각기 다른 시대에 살며 꿈을 통해 소통하고, 사랑하는 여자의 죽음을 막으려 모든 것을 건 사투를 벌이는 조정석과 이진욱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는 관객들의 마음을 뒤흔들며 영화에 몰입감을 높인다. 임수정의 혼신의 힘을 다한 1인 2역 연기 또한 각 역할에 힘을 불어넣어 보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감정 이입을 하게 만들어 작품에 빠져들게 만든다. 제작단계부터 화제를 모았던 최고의 캐스팅은 이제 완벽한 열연으로 이어져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3. 절박한 사투 끝에 만나는 뜨거운 감동,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감성추적 스릴러

'시간이탈자'의 마지막 관람 포인트는 바로 절박한 사투,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나는 뜨거운 감동이다.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한 30여 년의 시간 차를 넘나드는 긴박한 추적과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는 범인의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정해진 운명에 대하여 절박한 사투를 벌이는 두 남자의 이야기는 관객들을 예측 불가한 결말로 이끌어간다.

그리고 그 사투의 끝에서 만나는 애절한 사랑과 마음을 뒤흔드는 감동은 영화적 재미와 감성 모두를 만족시킨다. '감성추적 스릴러'라는 장르에서 예상할 수 있는 장르적 재미는 물론 예측을 뛰어넘는 놀라운 몰입과 감동을 선사하는 '시간이탈자'는 관객들이 러닝타임 동안 시간의 흐름을 잊을 정도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감성을 접하는 작품이 될 것이다.

aluem_chang@news1.kr



'곡성' 곽도원X황정민, 압도하는 혼신의 연기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오는 5월12일 개봉하는 '곡성'은 외지인이 나타난 후 시작된 의문의 사건과 기이한 소문 속 미스터리하게 엮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나홍진 감독의 6년 만의 신작이자 곽도원, 황정민, 쿠니무라 준, 천우희의 폭발적인 연기 시너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번에 공개된 '곡성'의 현장 스틸은 진지하게 촬영에 임하는 배우들의 모습과 치열한 현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마을에 발생한 의문의 연쇄 사건으로 견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는 경찰 중구로 분한 곽도원이 산속에서 험난한 추격신을 촬영한 후 자신의 연기를 진지하게 모니터링하는 모습은 몸을 아끼지 않은 혼신의 열연을 펼쳤음을 보여준다.

이에 곽도원은 "산을 뛰어다니고 개울을 건너고 절벽에 서있고, 추위와도 싸우며 촬영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해 중구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한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게 한다.

또한 다른 스틸에는 무속인 일광 역으로 새롭게 변신한 황정민이 고도의 집중력으로 촬영에 임하는 모습과 15분간의 롱테이크로 진행된 굿 장면 촬영 후 힘들어하는 모습이 담겼다. 황정민은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일 리얼한 굿 장면을 위한 특별한 노력과 압도적인 분위기로 보는 이들을 숨죽이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마을을 뒤덮은 소문의 중심에 선 외지인을 연기한 일본 배우 쿠니무라 준의 진지한 현장 모습은 '곡성'에서 보여줄 묵직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기를 기대케 한다. 특히 상처투성이의 얼굴 분장을 한 쿠니무라 준의 모습은 캐릭터에 대한 공감을 더하는 것은 물론 고된 촬영을 소화했음을 느끼게 한다.

이렇듯 영화의 높은 완성도를 위한 제작진과 배우들의 노력, 치열한 현장 분위기가 담긴 생생한 현장 스틸을 공개한 '곡성'은 한 시도 눈 땀 수 없는 배우들의 열연과 공들인 장면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aluem_chang@news1.kr

'특별수사' 성동일, 감초 연기 대가가 돌아왔다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에서 배우 성동일이 브로커를 특별히 서포트하는 변호사 판수로 또 한 번의 연기 변신에 나선다.

성동일은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에서 사무장을 모시는 변호사 판수로 감초 연기의 대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판수는 신이 내린 브로커 필재(김명민 분)를 도와 거대 세력의 음모가 숨겨진 의문의 사건을 파헤치는 인물.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헤어스타일과 순박한 시골

아저씨 미소의 판수는 자신의 직원인 필재에게 꿈쩍 못하는 어수룩한 변호사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필재와 함께 사형수 순태(김상호 분)의 누명을 풀어주기 위해 거대 세력에 맞서는 정의로운 캐릭터다.

매 작품 상대배우와 환상의 케미를 선보인 성동일은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를 통해 배우 김명민과 유쾌한 남남케미를 선보일 것을 예고한 가운데 "여러 분이 기대하는 유쾌한 캐릭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 번 관객들의 웃음을 책임질 것을 장담했다.

aluem_chang@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4월 4일 ~ 2016년 4월 10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공사창립특별기획(태양의후예)	33.3%
2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7.0%
3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6.5%
4	MBC	주말특별기획(결혼계약)	21.7%
5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8.8%
6	KBS1	KBS9시뉴스	17.8%
7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15.5%
8	MBC	일밤1부(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	14.4%
9	SBS	정글의법칙삼TONGA	13.7%
10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3.6%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3	SBS	아침일일연속극(내사위의여자)
4	S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5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6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7	MBC	주말특별기획(결혼계약)
8	SBS	주말드라마(그래그런거야)
9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산신)
10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봄이 좋냐??	10cm
02	사랑에 빠졌조 (당신만이)	장범준
03	너도 (Feat. Cha Cha Malone)	로꼬
04	넌 is 원들	마마무
05	시간을 달려서 (Rough)	여자친구
06	벚꽃 엔딩	버스커 버스커
07	어디에도	엠씨더맥스
08	같은 곳에서	소녀온탑
09	그녀가 곁에 없다면	장범준
10	몇 년 후에	블락비

숫자 퍼즐 (Sudoku)

				2				
	8	2	3		6			4
	4		9	7		2	8	
6	7		5					1
	1				8		9	2
	5	7		8	3		4	
8			4		1	3	2	
			7					

4월 17일 - 4월 2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깊이 생각해보아야</p> <p>● 운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능력에 무리가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세일을 하거나 단순히 싸다고 해서 구입하지 마세요.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애정: 막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하게 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0, 23일 길일. 18, 21일 주의.</p>	<p>소띠 치유되고 아물면서</p> <p>● 운수: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 금전: 매매나 거래를 하기에 유리한 때입니다. 부지런하게 다니는 만큼 들어오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 애정: 아직까지 마음의 주름이 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면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p>	<p>범띠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p> <p>● 운수: 바람직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가 아니니 어떤 일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 금전: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나가는 돈은 있어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예상치 않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는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p>
<p>토끼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p> <p>● 운수: 혼자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잘 살펴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p>	<p>용띠 유리하게 작용할</p> <p>● 운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되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에너지가 상승하니 건강은 회복되고 행복해집니다. ● 금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금전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애정: 그리 깊게 알지 않았던 사람과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알게 되는 것이 많을수록 이해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0, 21일 길일. 19, 22일 주의.</p>	<p>뱀띠 대책을 세워놓아야</p> <p>● 운수: 눈치껏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눈치가 없으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도 못하고 자기 것도 챙기지 못합니다. ● 금전: 꼭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지 않아 애를 태울 수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한번 틀어 생각하기 시작하면 걸잡을 수 없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더 큰 틀어 생각하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8, 21일 길일. 20, 23일 주의.</p>
<p>말띠 한 단계 발전할</p> <p>● 운수: 모처럼 마음껏 실력발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니 희망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 금전: 유망하게 보낼 수 있는 때가 왔으니 계획대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 행운이 따라줄 것이니 큰 이익도 생각합니다. ● 애정: 무너지기 어려울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7, 22일 길일. 18, 21일 주의.</p>	<p>양띠 기분전환이 필요함</p> <p>● 운수: 기분전환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금전: 금전 출입이 많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아하니 주머니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 애정: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지금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8, 23일 길일. 19, 22일 주의.</p>	<p>원숭이띠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p> <p>● 운수: 다른 사람이 주는 정보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낭패를 겪게 됩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금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손해를 부릅니다. 새로운 투자는 구입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애정: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당황하게 되거나 피곤해지는 일이 있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1, 22일 길일. 17, 23일 주의.</p>
<p>닭띠 신중하게 행동해야</p> <p>● 운수: 가족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고만 보지 말고 다시 한 번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한순간의 실수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애정: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7, 20일 길일. 18, 19일 주의.</p>	<p>개띠 금상첨화의 운세</p> <p>● 운수: 금상첨화의 운세이니 좋은 일들이 겹쳐서 들어올 것입니다. 서로의 뜻이 합쳐지면서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 금전: 실속이 있는 때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들어오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 애정: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20일 길일. 17, 19일 주의.</p>	<p>돼지띠 웃으면서 즐겁게</p> <p>● 운수: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가려운 데를 알아서 긁어주니 너무도 시원할 것입니다. ● 금전: 과거에 베푼 일로 크게 보답 받는 일이 있겠습니다. 성의를 생각해서 웃으면서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 애정: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모르십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9, 22일 길일. 17, 23일 주의.</p>

'무도' 잭스키스 콘서트 '잭키존' 착석에 필요한 아이템은?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MBC '무한도전'이 잭스키스와 콘서트를 진행한다.

'무한도전' 측은 14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하나하나 마지막 공연은 오늘 저녁 8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16년 만에 돌아온 잭스키스의 무대! '토.토.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뜨거웠던 열기속으로 여러분을 소환합니다"라고 덧붙여 기대를 높였다.

앞서 '무한도전' 측은 이날 멤버들과 잭스키스가 하나하나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하나 마지막 공연으로 큰 규모의 무대가 상암에서 마련된다고 예고돼 다시 한번 시청자들의 기대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작진은 잭스키스 팬클럽을 상징하는 노란 우비를 비롯해 2000년 당시 응원도구 사용했던 현수막, 잭스키스의 패션 등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공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잭키존' 좌석에 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공연에는 은지원, 강성훈, 장



수원, 김재덕, 이재진이 참석한다. 특히 잭스키스 해체 후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두문분출했던 고지용까지

합세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송혜교, '개념배우' 이어 '뇌섹녀'까지?

(서울=뉴스1스타) 이진욱 기자 = 미쓰비시 광고를 거절한 배우 송혜교의 뛰어난 외국어 실력이 새삼 화제다.

송혜교는 과거 방송된 tvN '명단공개 2016'에서 '연예계 뇌섹스타' 3위에 올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송혜교는 '온라인 오케스트라 프로젝트'의 아시아 홍보대사를 맡아 원어민 못지않은 영어 실력을 뽐냈다. 이어 미국 독립 영화 '페타쉬'의 주인공으로 출연해 80% 이상의 영어 대사를 소화했다고 밝혔다.

송혜교는 중국 영화 '나는 여왕이다' 속 모든 대화를 중국어로 소화해 감독의 극찬을 받기도 했다. 과거 한 일본 방송에서는 자연스러운 일본어 회화를 보여줘 4개국어가 가능한 배우임을 입증했다.

한편 송혜교는 최근 미쓰비시 자동차의 중국 광고 모델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사실이 알려져 '개념배우'로 등극했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노역으로 대표되는 3대 기업 중 한 곳인 전범기업이다.

star@news1.kr

'해투' 헤리, 두살 터울 여동생 공개 '언니 못지않은 미모'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헤리의 여동생이 공개됐다.

헤리는 14일 밤 11시 15분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3'에서 두 살 터울 여동생에 대해 "스튜어디스 지망생이다"고 말했다.

헤리는 "21살이다. 방송국에서 계속 프로그램에 나와달라고 전화가 온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공개된 헤리의 여동생은 헤리 만큼이나 미모를 자랑했다.

헤리는 "여동생이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오늘 너 얘기 해도 되냐고 허락 받았다"며 "'심한 건 아닐 거야'라고 하니깐 알았다고 하더라"라고 여동생과의 일화를 밝혔다.

ppbn@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0408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o-Com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4월 1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우리집 꿀단지
2	KBS	아이가 다섯
3	SBS	내 사위의 여자
4	K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5	MBC	가화만사성
6	MBC	내일도 승리
7	MBC	결혼계약
8	MBC	그래그런거야
9	MBC	아름다운 당신
10	SBS	천상의 약속

티보플레이 4월 1째주 신규 방송

1	KBS	언니들의 슬램덩크
2	MBC	듀엣 가요제
3	CJ E&M	신서유기

티보플레이 4월 1째주 최신 영화

1	널 기다리며	신은경, 윤제문
2	커터	최태준, 김시후

'듀엣가요제' 정규 편성 확정, 4월8일 첫 방송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명절 파일럿으로 두 차례 방송되며 큰 화제를 모았던 MBC '듀엣가요제'가 정규 편성을 확정했다. <삼성카드 웨딩박람회 초대전>

21일 MBC 측에 따르면 '듀엣가요제'는 오는 4월8일 밤 9시30분 첫 방송된다. '듀엣가요제'는 지난 설 파일럿 프로그램 방송시 시청률 11.2%(TNmS 수도권 기준)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프로그램이다. 명절 특집 당시 최정상 연예인 출연자와 실력과 일반인의 듀엣 무대가 흥미롭다는 평을 받고 이번에 정규 편성됐다.

첫 방송에서는 지난 설 연휴 파일럿 방송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EXID 솔지와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버즈의 민경훈이 우승 탈환을 목표로 다시 한번 출연한다. 이어 한국 대표 발라드 그룹 노을의 강군성과 가요계 센 언니 제시, 에프엑스 루나, 마마루 솔라가 새롭게 합류한다. 특히 솔지, 루나, 솔라 등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하는 걸그룹 메인 보컬들의 뜨거운 대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듀엣가요제'는 현장의 생생한 감동을 느끼며 우승자를 결정할 청중평가단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결혼계약' 이서진, 유이 시한부 알고 오열 "내가 남편이다"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결혼계약' 이서진이 유이가 이별을 고한 이유를 알았다.

10일 밤 10시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결혼계약'(극본 정유경/ 연출 김진민) 12회에서는 한지훈(이서진 분)이 강혜수(유이 분)의 병을 알아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한지훈은 강혜수에게 '내일 병원에서 봅시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때 강혜수는 가방을 잃어버렸고 이를 주는 사

람은 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혜수의 가방을 받은 한지훈은 병원 봉투를 발견하고 의사를 찾아갔다. 그는 "내가 남편이다"라고 주장하며 의사에게서 "생존율이 높지 않다. 치료를 시작했는데 몇 년이 걸릴지 두고 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강혜수가 심각한 병에 걸렸고 그래서 자신을 멀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지훈은 좌절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naheel26@news1.kr



TBO PLAY

보스톤권역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net,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Call: 761.883.5964
Email: chunglee7@gmail.com
607 Boylston St., Suite 500
Boston, MA 02116
www.kw.com

NEW LISTING

세탁소 연 350평불 매상
모녀 파이낸싱 및 건물 포함 가능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LISTINGS

- 1. Full Plant 플랜트 : 맥심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9M **SOLD**
- 2. Full Plant 세막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 3. Full Plant 세막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 중매** 4. Full Plant 세막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 6. 드림오피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 8. 드림오피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 7. 보스턴 인근 아파트 : Asking \$225,000 **SALE PENDING**
- 6. 오피스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6,498 **RENTED**
- 9. Single family : 22 Wilson park, Wellesley **SOLD**
- 10. Condo : 20 Hoerner st, unit 1, Watertown **SOLD**
- 11.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 12. 미발 식물 : Allston **SOLD**
- 13. Single Family : 4 Bed, 2 Full Bath, 2,130 SF, 64 Oak St, Newton **SALE PENDING**

NEW LISTINGS

콘도
47 Homer Ave, Unit F-3
Cambridge, 2Bed 1Bath 1kitchen
좋은 위치, 하버드 스쿨에서 페스로 10분,
Asking **\$429,000**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23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대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19,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42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세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고운 햇살의 봄을 맞으며 자녀의 대학입학을 준비하던 지인들의 입학 소식을 여기저기에서 듣게 된다. 아는 동생과 친구 자녀들의 입학 축하에 나도 덩달아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보냈다. 이렇듯 축하의 마음과 인사를 전하며 우리 아이들의 지난 시간이 스쳐 지난다. 세 아이를 연년생으로 키우며 엄마의 마음이 버겁고 일손만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다. 그래도 엄마는 세 아이가 잘 자라주어 고마운 마음 가득하다. 더욱이 고마운 사람은 가족들을 위해 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세 아이를 키우며 일손이나 경제적으로나 참으로 바쁘고 바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렇듯 세 아이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며 각자의 길에서 뚝을 다하는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세 아이가 잘 자라준 덕에 남편에게도 가끔은 큰 목소리를 내며 아내의 파워가 아닌 '엄마의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모두가 남편의 성실함과 열심히 덕분인 것을 알기에 아이들에게도 아빠의 자랑스러움을 서로 얘기하며 나누는 것이다. 자식으

로부터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 빠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우리 집 딸아이는 올해를 맞아 만 26살이 되었다. 딸아이는 2012년 5월에 아랍 히스토리를 전공하고 브랜디스 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봉사활동과 일을 하다가 2015년 5월에 보스톤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아메리칸 히스토리)을 전공하고 졸업했다. 졸업 후 보스톤 시내의 중·고등학교에서 American History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 집 큰 녀석은 만 25살이 되었다. 큰 녀석은 2013년 5월에 정치학과 철학을 복수 전공하고 밴더빌트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 보스톤 칼리지 법대(Law School)에 입학하고 다음 달인 2016년 5월에 법대를 졸업한다.

우리 집 막내 녀석은 만으로 23살 반이 되었다. 막내 녀석은 2014년 5월에 히스토리를 전공하고 시라큐스 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한 후 대학교 4년 여름방학 동안 석 달 내내 일하던 썸머 캠프장에서 카운슬러(대학생 90여 명)들의 디렉터로 2년째 일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9월이면 법대에 입학하게 된

다. 보스톤 시내의 법대 몇 군데에 입학지원서를 넣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학교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듯 세 아이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져 온다. 지나온 시간들 속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견뎌와 기다림의 감사가 절로 차오르는 것이다.

공부는 끝이 없다. 더욱이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매일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며 살아야 '산목숨'이다. 그 공부의 궁극이 학문 일 이유나 까닭은 더욱이 없다.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공부다. 이렇듯 햇살이 곱고 소슬바람이 오가며 들에 연초록 새싹이 오르는 때에 공터가 있다면 밭을 일구고 없다면 큰 화분을 준비해 채소들의 싹을 틔워 심어 보는 일도 하나의 공부라는 생각을 한다. 그림을 배워보는 일도 그리고 요즘 모바일폰의 사진 화질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 사진도 담아보는 취미도 좋은 공부라는 생각을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이 있지 않던가. 삶에서 남은 시간이란, 남은 시간이란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나 자신이 선택해 쯔

개어 쓴 시간이 내 남은 시간이고 남은 시간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된다. 그러니 바쁜 시간에 유의한 책도 읽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도 찾아보고 그렇게 살면 바로 그것이 공부라는 생각이다. 물론, 나이 들어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멋지고 재미있는 일이 또 있겠는가. 하지만 길지 않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뜨개질도 좋고 수놓는 일도 좋고 퀼트도 좋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바로 최고의 공부인 것이다.

살면서 참으로 깊은 깨달음으로 남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내 가슴에 사무치도록 남는 것은 하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임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자리에서든 이롭거나 할지라도 귀히 여기며 소중함을 배우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칭찬 거리를 보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큰 박수를 줄 수 있음이 감사이고 축복인 까닭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거든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남는 오늘날이다. 진정,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래서 더욱이 진심과 정성을 다하며 살기를 기도한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화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 신문에서 읽었다. 9급공무원 시험에 경쟁률이 몇백대 일이란다. 공무원이 되는 것이 보통 힘이 드는 일이 아닌 모양이다. 보스톤에서 봄꽃이 피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젊은이들에게 취업문이 좁기는 좁은가 보다. 고민 많은 '요새 젊은이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수십 년 전이다. 한국 중앙지에 신문 반편을 차지한 글이 실렸다. 제목이 길었다. '어른님들 내 맘좀 들어보소'. '요새 젊은 것' 이 쓴 글이었는데, 동전치기 한다고 나무라지 마시라 투정이었다. 신바람 나는 일 없어 고민한다는 말투였던 거다. 당구장, 튀김에 소주, 며칠 감지 못한 장발엔 기름때가 흘렀다. '요새 젊은 것들' 머리가 그제 뿔나. 너무 나무라지 마시라는 부탁이었다.

며칠 지나면, 4.19이다. 그 시절 육십년대 초반 '젊은 것들'도 그랬던 모양이다.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문제 때문에 고민했다 했으니 말이다. 내가 '요새 젊은 것'이었을 적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소주를 앞에 놓고 말이다. 입속으로 털어 넣고 그 친구 하는 말을 들어야 했다. 튀김 조각을 간장에 찍으며 그가 말을 이어갔다. 김광규 시인이다. 시인은 사일구 세대이다.

4·19가 나던 해 세밑/우리는 오후 다섯시에 만나
...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사랑과 아

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흥내낼 수 없는 노래를/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중에서)

세일럼에 가면 피바디 박물관이 있다. 그 옛적 유길준이 이곳에 남아 공부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 갈적에 벗어 놓고 간 것이며, 관복이 전시 되어있다. 그시대 '요새 젊은 것들' 유길준과 서재필과 김옥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인가. 한창 혈기방장한 청년들 아니었던가. 우리네 젊은 이들보다야 성숙했을 텐가. 서유견문록을 읽기는 읽어야겠다. 그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그도 사랑과 조국과 인생을 고민했을까.

세월이 흘러갔다. 갑신정변은 한세기도 넘겼다. 사일구 세대 선배들도 일선에서 은퇴한지

한참 됐다. 계속 김광규 시인이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혁명이 두려운 기성 세대가 되어/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옛적 '요새 젊은 것' 이 이제는 '요새 젊은 것' 들을 나무란다. 선배들이 그랬던 것 처럼 말이다. 내 아이도 이제는 요새 젊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녀석도 세월이 가면, 요새 젊은 것들을 보고 혀를 차겠지. '요새 늙은 것들' 중에 하나였던 아버와 '요새 젊은 것들' 중에 하나인 아이가 공존한다. 내가 요새 젊은 것이었을 적에 무얼 고민했던가. 그건 기억이 희미하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되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전도서 1:4)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경쟁과 속도로부터 해방되거나 아니면 새장 안에 있는 새처럼 갇혀있지 말고 자유로운 생각으로 날개를 펴보십시오. 어둡거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계기의 창을 열고 나설 때, 자기가 찾는 이상의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 문수사 회주 도범 스님, “구도자의 발자취” 중에서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봉축법회: 불기 2560년 (2016년) **5월 14일 토요일***

(*올해 봉축법요식은 토요일에 열립니다.)

제1부 오전 11시: 봉축 법회

제2부: 관불의식

특별행사: 오후 2시 이후, 장수촬영(영정사진촬영).

장소: 문수사 큰법당,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문의: (781) 224-0670, (781) 439-8383

* 연등접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지 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781) 439-8383 입니다.

* 행사 당일 라이드가 필요하시면 문수사로 연락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 I-95 North Exit 42로 나오신 후, 바로 Salem St으로 우회전, 약 150 미터 전방에서 Gst station의 왼쪽길로 직진후 약 200미터를 더 오시면 갈라지는 길에서 오른쪽에 문수사 표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I-95 South Exit 42로 나오실때는 Exit 직후 좌회전하신뒤 Salem St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문수사는 모든분께 열려있습니다.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시, 요가: 화/목요일 저녁 7:30-9:00시



회주 도범스님
주지 혜각스님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4. 제로니모와 나바호의 천리 길 (1)

크레이지 호스 기념관 (계속)
이 크레이지 호스 조각상은 Richard Cavendish가 지은 '죽기 전에 꼭 가 봐야 할 1001개의 역사적인 장소' 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공사가 시작된 지 7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그 절반도 진척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완공까지는 최소한 수십 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각중인 크레이지 호스 석상〉

14. 제로니모와 나바호의 천리 길 아파치 부족

미국의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콜로라도 등의 남서부지역과 멕시코 북부에 걸쳐 살고 있었던 인디언 부족을 총칭하여 아파치족이라 부른다. 나바호족도 역사적으로는 광의의 아파치 범주에 포함되나 현대에 와서는 분리하여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치족에 속하는 주요 부족으로는 Navajo, Western Apache, Chiricahua, Mescalero, Jicarilla, Lipan, Plains Apache (Kiowa-Apache) 등 7개의 부족이 있으나 이 밖에도 수많은 소수 부족과 지파가 있다.

이들의 언어가 캐나다 서북부 인디언의 언어인 아타바스칸(Athabaskan)언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미대륙 북쪽의 추운 지역에서 지금 미국의 남서부지역으로 1300년경에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목민이었던 이들은 전부터 그곳에서 살아온 푸에블로 인디언으로부터 옥수수과 콩 등의 농사법을 배웠다. 이들은 위그웬(wigwam, wickiup 또는 wetu)라 불리는 반구형의 움막집을 짓고 살았다. 앞에서 살펴본 아나사지 문명이라는 이름은 나바호 말에서 유래하였는데, '옛 사람들' 또는 '옛 적들'이라는 뜻을 가진 옛 푸에블로 사람들을 지칭하는 나바호어이다. 그들은 스페인 이주자와의 접촉 후에는 양등의 목축도 시작하였다. 나바호족과 아파치족은 스페인과 멕시코로부터 지배를 받던 시절부터 자기네 땅을 침범해 들어오는 유럽 이주민과 갈등을 빚어왔다.

베스컴 중위 사건

대평원전쟁이 1854년 8월 19일 그레턴 소위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서남부의 아파치 전쟁도 1861년 2월 5일 벌어진 베스컴 중위(George N. Bascom) 사건이 시발점이 되었다. 1월 27일 톤토(Tonto) 아파치족 무리가 워드(John Ward)라는 이름의 백인 목장을 습격하여 가족 몇 마리와 12살 난 그의 아들(Felix)을 잡아왔다. 워드는 이 사실을 미군에게 알렸고 베스컴 중위가 사건 해결의 책임자로 선정

되었다. 베스컴 중위는 치리카우아족이 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여 1861년 2월 3일 코치스(Cochise) 추장을 만나러 갔다. 베스컴의 숨은 의도를 경계하여 코치스는 부인, 동생, 조카 둘 그리고 아이 둘을 데리고 회담장소로 갔다. 베스컴이 꺼낸 문제에 대하여 코치스는 전혀 아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자 베스컴은 코치스와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두겠다고 나섰다. 이 때 코치스만 재빨리 칼로 천막을 베고 회담장에서 빠져 나왔다. 코치스가 베스컴에게 인질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베스컴은 납치된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인질을 석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음날 코치스는 백인 무리들을 습격하여 이 중 세 사람을 인질로 잡았다. 대치 상황이 악화되어 두 쪽 모두 인질을 살해해 버렸다. 이때부터 치리카우아족이 멕시코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적개심이 미국인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1858년 3월 5일 멕시코의 Kas-Ki-Yeh에 살고 있던 때에 남자들이 멀리 읍내로 교역하러 나간 사이에 카라스코(José María Carrasco) 대령이 지휘하는 멕시코 군인 400명이 마을을 급습하여 거기 있던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대부분을 살해한 사건이 있는 뒤로 아파치족은 멕시코인들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 학살사건에서 제로니모의 처와 세 자녀들도 피살되었다고 한다. 베스컴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그 후 반세기 이상에 걸쳐서 아파치족과 백인간에

보복이 악순환 되는 살육전이 서남부 지역에서 벌어지게 된다.

아파치 패스 전투

아파치족의 첫 보복은 아파치 패스에서 발생하였다. 아파치 패스는 미대륙의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애리조나의 동남쪽에 위치한 길목으로서 대륙관통 옛길 중 하나인 Butterfield Overland Trail이 이 고개를 통과한다. 1862년 7월 북군의 칼턴(James H. Carleton) 대령이 수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캘리포니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아파치 패스로 접근하고 있었다. 고개 위 바위산 뒤에는 아파치 전사 약 500명이 매복해 있었다. 미군이 고개 가까이 접근하자 인디언들은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미군은 잠시만 응사하다가 곧 후퇴해버렸다. 다시 나타난 미군은 이번에는 엄청난 대포를 가져 왔다. 아파치족이 이렇게 큰 대포를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대포 때문에 인디언들은 정면 공격으로는 승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물러섰다가 다음날 대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기병대를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두 명이 사망하고 아파치는 약 열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전투중 추장인 망가스(Mangas Coloradas)가 크게 다쳤다. 그는 몇 달 간의 치료를 건강을 회복한 후 그들의 은거지인 밌브르산(Mimbres Mountain)으로 돌아왔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26 화랑세기花郎世紀, 2세 풍월주風月主 미진부공未珍夫公(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상상케 하지만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심복이나 대리인 정도로도 쓰이고 있다.

다음은 춘추전국시대의 7웅 중의 하나인 위魏나라의 용양이란 인물에 대해 살펴본다. 용양은 안리왕 때의 총신으로, 총애의 원천은 바로 남색이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용양군 또는 용양신은 남색으로 주인이나 상관을 받드는 인물의 대명사로 쓰여 왔다. 이 용양에 관한 이야기는 중국 전한시대의 학자인 유향이 전국시대의 유명한 책사나 모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아 편찬한 '전국책' 가운데서 위나라에 관한 위책에 나온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어느날 위나라의 안리왕과 함께 낚시를 한던 용양군이 고기 십여 마리를 낚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 무슨일이냐고 물으니, 용양군이 "제가 낚은 고기가 꼭 저를 닮은 듯해서 그만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제 무슨 말인가 하고 왕이 재차 물으니, "제가 처음 고기를 잡았을 때는 그 기쁜 마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고기들을 잡자, 그만 앞서 잡은 고기를 아끼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잘 생기지도 않은 저 같은 이가 총애를 입어 임금님 잡자리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천하의 미인들이 줄을 이어 모이면 저는 낚시에 걸린 저 물고기처럼 음식으로 요리될 날만 기다리게 될 것이 아니옵

니까? 그런 생각에 그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니다" >

위의 용양이 여자라고 생각되기 십상이지만 그는 분명 남자였다. 그리고 안리왕 역시 남자였다. 이 이야기로 비롯하여 어떤 남자를 용양군(또는 용양신)이라고 하면 그가 곧 남자를 위해 성적으로 봉사하는 인물의 대명사로 쓰이게 된 것이다.

이어지는 화랑세기 대역본, [그러므로 준정이 영실공을 부지런히 섬겨, 남모가 원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태후는 비록 유명으로 영실을 계부繼夫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공에게 명하여 준정이 물러나게 했다. 태후는 또 남모에게 남도가 부족한 것을 염려하여, 위화랑공의 남도를 속하게 하여 늘려주었다. 준정이 투기를 했다. 이에 술로 유혹하여 물에서 죽였는데, 남모의 남도들이 그것을 폭로했다. 태후가 이에 원화를 폐지하고 선화仙花를 화랑으로 삼았다. 그 무리를 일러 풍월風月이라 했고, 그 우두머리를 이라 풍월주風月主라 했다. 위화공이 풍월주가 되고, 미진부공이 부제副弟가 되었다. 얼마 안되어 공이 풍월주가 되었다. 공은 남모를 잃은 이후부터 아내를 맞지 않았다. 공은 외손으로 일찍이 범흥대왕을 모셨는데, 궁중에서 후궁인 묘도부인과 사통을 했으나, 감히 말하지 못했다. 태후가 알고 허락했다. 공은

이에 묘도를 아내로 맞이하여 미실남주美室娘主와 미생랑美生郎을 낳았다.]

화랑세기에도 준정이 투기하여 남모에게 술을 먹여 죽인 기록이 위와 같이 간단히 나온다. 남모가 공주였지만 화랑세기에는 남도들이 준정을 더 따랐음을 볼 수 있다. 즉 남모 공주 휘하에 있던 남도들이 준정에게로 많이 갔고 그래서 위화랑에게 속해있던 남도들을 남모에게 주었다. 그리고 지소태후는 남편이지만 박영실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그를 섬기는 준정 또한 미워한 것이다. 그래서 준정을 물러나게 한것이고 이에 준정이 남모를 죽였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보다 더 정치적인 냄새가 풍기는 장면이다. 남모공주는 미진부공의 정처正妻였는데 그가 죽은 후 미진부공은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다가, 전에 궁에서 범흥왕을 모실때 사통한 후궁 묘도부인을 지소태후의 허락으로 부인으로 맞아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의 한 명인 미실을 낳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자가 지방이식'과 '필러 시술'의 장단점은?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스타동안성형외과피부과' ... "두 가지 모두 장단점 있어,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 찾아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얼굴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혹은 콜라겐의 변성과 손실에 따라서 피부결이 고르지 않게 주름이 생기는 형태를 보인다.

주로 미간이나 팔자, 이마 등에도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한 지방의 위축이나 손실에 의해서 볼록하던 이마나 볼, 앞광대 등이 입체감을 잃어서 나이가 더 들어보이게 된다.

이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흔히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아서 이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고 이 상담 중에 흔히 필러나 자가 지방이식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필러와 자가지방이식이 대표적인 얼굴주름이나 볼륨을 만드는 방법으로 우선 자가지방이식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자가지방이식은 자기 몸의 다른 부위 배나 허벅지에서 지방을 추출해서 수분을 줄인 후에 얼굴이나 손등에 부족한 부위에 이식을 하는것으로 이마, 앞광대, 관자, 팔자, 코, 입술, 턱, 뺨, 손 등 등의 부위에 이식해서 볼륨감을 주는 시술법이다.

자기의 지방을 추출해서 사용하므로 특별한 부작용은 전혀 없으며 좀더 부드러운 감촉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얼굴형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필러는 Hyaluonic Acid(콜라겐과 유사한 진피의 구성물질)의 일종으로 합성으로 만들어져서 제품화 되어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방이식과 같이 특별한 전처치(지방추출)없이 간편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장점이다. 주로 팔자주름이나 미간주름의 개선 낮은 코의 개선 등의 용도에 많이 쓰이고 지방에 비해 보다 경계가 뚜렷하게 나오는

양상을 보여서 이런 부위에서 간편하면서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게 장점이다. 단 넓은 부위에서는 지방이식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부담이 될 수 있고 부드러운 모양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가지방이식이나 필러시술모두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시술이므로 어떤 시술이 더 낫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스타동안성형외과피부과의 최호철 원장은 "많은 시술경험을 가진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 후 두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모든 미용시술이 그러하듯 비현실적인 기대는 버리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고국방문 의료 서비스 '휴람 네트워크'의 김수남 팀장은 "휴람과 제휴를 맺고 있는 '스타동안성형외과피부과'

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시술 및 수술을 하는 곳"이라며 "자가 지방이식이나 필러 시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국방문시 상담을 받아 보길 권한다"고 했다.

'스타동안성형외과' 및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그 이외에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전화 617-955-9112)로 하면 된다.

널찍한 사각턱, 안면윤곽술로 V라인 만들기

널찍한 얼굴은 어른들에게는 항상 복스럽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V라인이 대세인 요즘, 사각턱으로는 참 설 곳이 없다. 사각턱은 강한 인상과 함께 투박스럽고 남성스러운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 더욱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요즘은 사각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면윤곽술이나 사각턱 수술보다는 보톡스를 통해서 좀 더 위험성이 낮고 간편하게 치료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 턱이 넓어 보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다. 턱이 넓고 또 각이 쳐 보이는 증상에는 두가지가 있다.

보톡스로 치료가 가능한 사각턱은 턱 근육의 교근이 발달한 경우이다. 하지만 사각턱 보톡스의 효과는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3~4회 정도 재시술이 필요하다. 이 역시 딱딱한 것을 즐겨 먹는 식습관이나 턱을 괴는 등의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다시 교근이 발달해 사각턱이 재발할 수 있다.

교근이 아닌 골격자체가 넓게 발

달해 나타나는 사각턱의 경우 사각턱 수술로 해소가 가능하다. 넓게 발달된 아래턱의 양 끝 부분을 절골하는 방법으로 사각턱을 해소할 수 있다.

스타동안성형외과 대표원장은 '사각턱 수술은 턱의 무수히 많은 혈관과 신경들을 피해 정확한 위치를 절골해야 한다'고 말하며 "안면윤곽술과 사각턱 수술의 경험이 많은 숙련된 전문의가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안면윤곽에 특화된 병원을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 **코리아**

T. 617-955-9112

STAR ★ 동안
피부과·성형외과

대한민국 1등 피부과·성형외과 (구, 이화성형외과)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

안면 거상술, 리프팅, 지방 흡입술, 지방 이식술을 잘하는 스타동안 피부과성형외과의원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안면거상술 (목포함)	상안검	하안검	절개쌍꺼풀	매몰쌍꺼풀	얼굴지방이식 (PRP포함)	코성형
770만원	880만원	220만원	220만원	198만원	110만원	275만원	330만원
550만원	660만원	132만원	132만원	121만원	88만원	165만원	264만원

무가세(VAT) 포함가

-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아우르는 토탈 피부성형미용 원스탑 서비스
- 한국내 최초 항노화 전문 클리닉 개설 전문의
- 성형수술 후 붓기케어 및 재생관리 서비스
- 모든 수술시 FDA 승인 받은 엄선된 정품 재료사용

Before & After



617-955-9112

- 한국내 최신 레이저 장비 6대 보유
- 메디컬 케어 서비스 (호텔 내 병원 위치)
- 한국내 최초 수술보증제도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청년의 **비전**

**Show!
One Korea!**

2016 세계 **장병·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

참가 대상 지역 초·중고, 대학(원)생, 사회인, 국내·외/탈북, 현지인, 잠전공사후손, 군인 등 2명이상 6명 이내의 팀

발표 방법 팀별 2~6명으로 편성, 10분 이내로 자유형식 발표
※ PT·토크·뮤지컬·콩트·연극·개그·연주·마술·댄스 등 모든 퍼포먼스 허용

대회 신청 4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
<https://sites.google.com/site/bostonnuacorg>

대회 진행 예선대회: 6월4일(토) Harvard 대학
※ 각 예선대회 최우수팀 본선대회 진출
본선대회: 7월18일~22일(잠실롯데월드몰 및 캠프그리브스)
※ 방송중계 및 다양한 통일·안보 체험행사 진행

문의연락처
윤미자 mijayun@hotmail.com / 조진행 contact.bostonnuac@gmail.com

총 2억원 상당의 상금 및 다양한 특전

예선 시상	최우수상	1팀	본선참가특전
	우수상	2팀	50만원
	장려상	3팀	30만원

- 최우수팀은 본선출전권 부여
- 해외 최우수팀(전원여제는 상금으로 본선참가를 위한 항공권간편화 지급)
- 본선팀은 대회기간 합숙비 전액지원
※ 국내외 지역이연대회별 시상

본선 시상	대상	1팀	1천만원
	최우수상	1팀	5백만원
	우수상	5팀	3백만원
	장려상	13팀	1백만원

- 전원 '통일·안보라미, 인증서 수여
- 국내·외 통일안보 행사에 초청
- 연례 통일안보라미 워크숍 초청
- 연례대회 진행요원으로 참여
※ 시상 종류는 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www.showonekorea.kr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27) 투자 기본원칙

규칙 #1: "결단코 돈을 잃지 말라."
규칙 #2: "규칙 #1을 절대로 잊지 말라."
투자 귀재인 워런 버핏의 투자 조언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이러한 규칙에 "누구는 돈을 잃고 싶어서 잃는가..."하며 이해합니다.
리처드 러셀은 다우 이론(Dow Theory) 뉴스레터를 1958년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도 비슷한 조언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커다란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해는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충고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이 돈을 잃고 있습니다. 대박을 기대하는 투자, 도박, 잘못된 비즈니스 결정, 욕심, 투자 시점, 주식시장 폭락, 높은 이자, 사기, 요행, 투자경비, 등으로 돈을 알게 모르게 잃습니다.
돈을 결단코 잃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잃을 때는 손실의 폭이 작아야 합니다. 주가가 100불이 50% 하락하면 50 불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50% 상승하면 75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 가격 100불이 되기 위해서는 100% 상승해야 합니다. 100% 상승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투자 손실의 폭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분산투자가 제대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공격적인 시합으로 어느 한 게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어능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는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합니다. 그러나 수익보다는 투자 위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된 경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도 가능해야 제대로 하는 투자입니다.
피뢰침을 발명한 벤저민 프랭클린의 조언이 있습니다. "경비 부과에 신경 써라,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키는 이유이다. (Beware of expenses. A small leak will sink a great ship.)" 모든 투자에는 경비가 부과됩니다. 일반 투자자는 특히 한인 일 세대는 투자경비에 관대합니다. 부과되는 모든 경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면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백만 불을 주식시장에 투자합니다.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1.0%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곳에 투자하면 20년 후에는 약 \$560만 불이 되고 2.0%가 부과

는 곳에 투자하면 20년 후에 \$460만 불이 됩니다. 단지 1% 수수료의 차이가 무려 \$943,454가 됩니다. 20년 후 거의 백만 불(\$1,000,000)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부과되는 경비가 1%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상담가가 선택하는 금융상품에는 수수료(commission)가 있습니다. 어뉴어티의 수수료는 4%~10%, 로우드(Load) 뮤추얼 펀드는 8.5%, 부동산 투자 (Non-Trade REITs)는 10%, 그리고 생명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은 120%까지도 부과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재정상담가가 손님한테 말하지 않아도 되고 재정문서에도 항목별로 따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뮤추얼 펀드에 부과되는 수수료 외에도 매년 부과되는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영어로 annual expenses라고 합니다. 부동산(Non-Trade REITs) 투자는 2%, 어뉴어티는 3.6%~4.5%, 로우드가 없는 뮤추얼 펀드는 0.05%~6.74%이며 평균 1.3%가 매년 부과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많은 경

비 때문에 투자자는 오랫동안 투자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투자 경비가 많이 부과되는 금융상품 대부분이 복잡합니다. 한 예로 어뉴어티의 법적인 서류(prospectus)는 작은 활자로 200~300 페이지나 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다 읽어본 후 투자하는 일반인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파는 사람의 말만 듣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Don't invest in anything you don't understand.)"
끝으로, "듣기에 매우 좋은 투자는 대부분 잘못된 투자이다. (If it sounds too good to be true, it probably is.)"라는 말입니다. 금융상품을 파는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은 "무엇무엇을 보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숨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듣기 좋은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돈을 잃지 않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P US History 준비, 키워드를 분석하면 길이 보인다 (7)

DBQ 준비를 위한 황금률 1. 기출문제

작년에 AP US History가 개정되었을 때, 기존 AP의 시험 포맷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부분은 문헌기반 에세이 (DBQ: Document Based Question) 부분이다. 대부분의 AP 수강생들이 학교에서 숙제 혹은 시험으로 연습 해봤다시피, DBQ에세이에는 주로 연설문, 편지, 통계, 만평, 그래프, 지도, 법령 등의 1차사료 (Primary Source)들이 등장한다. 보통 DBQ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다음의 자료들에 근거하여) ~의 타당성을 평가하라 (Assess the validity), ~의 상대적인 중요성/영향을 평가하라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influence), 비교하고 대조하라 (compare and contrast), 어떤 의미에서 (To what extent) / 어떤 식으로 (in what ways) ~ 인지를 논증하라 등이 있다.
대개는 난생 처음 접하는 자료의 의미와 함축을 정확히 이해해야하고, 주어진 시대와 사건에 대한 배경지식이 뒷받침되어야하는데다가, 논리적인 구조와 타당한 논증을 제시해서 '손으로' '완결된' 역사에세이를 5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완성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작업이 아닐게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문제의 의미를 생각하는 동안에 시험 시간이 끝날 수도 있는 터.
DBQ 에세이는 상당부분 시간과의 싸움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DBQ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반드시 권하고 싶은 것은 아웃라인 브레인 스토밍이다. 그리고 그 브레인 스토밍은 가능한 시험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다. 어떤 문제가 나올 지 모르는데 브레인 스토밍을 미리 해놓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있다. 첫째, 칼리지보드는 과년도 DBQ문제들을 공개하고 있다. 둘째, 반드시 과년도에 나왔던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는 없겠지만, DBQ 문제는 질문과 사료들을 바꾸어가면서 "돌고 돈다." 셋째, 기출 DBQ 문제들을 시대별로 정렬해두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모든 에세이를 다 써볼 시간은 없을 것이기에, 아웃라인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권하는 것이다. 즉, DBQ에 대비하기 위한, 그리고 AP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황금률은 기출 에세이 문제에 대한 분석과 사전 브레인스토밍이다.
가령 과거 도금시대와 관련해서 출제되었던 에세이는
In the post-Civil War United States, corporations grew significantly in number, size, and influence. Analyze the impact of big business on the economy and politics and the responses of Americans to these changes. Confine your answer to the period

1870 to 1900. (2012년)
Analyze the ways in which technology, government policy, and economic conditions changed American agriculture in the period 1865-1900. (2007년)
How successful was organized labor in improving the position of workers in the period from 1875-1900? Analyze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level of success achieved. (2000년)
To what extent did the natural environment shape the development of the West beyond the Mississippi and the lives of those who lived and settled there? How important were other factors? Use both evidence from the documents and your knowledge of the period from the 1840's to the 1890's to compose your answer. (1992년)
Documents A-H reveal some of the problems that many farmer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1880-1900) saw as threats to their way of life. Using the documents and your knowledge of the period, (a) explain the reasons for agrarian discontent and (b)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farmers' complaints. (1983년)

등이 있다. 도금시대에 대한 내용 정리가 끝났다면 반드시 이 에세이 주제들을 가정한 아웃라인을 만들으로써 도금시대의 산업자본가와 대기업의 성장, 노동문제(와 노동운동), 남북전쟁 이후 극서부의 정복, 19세기 후반 농업 지역의 현실 (그리고 인민주의 운동)등에 대한 리뷰가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혁신주의 (Progressivism)에 대한 학습을 마쳤다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기출 DBQ에 대한 아웃라인 잡기가 필요할 것이다. (혁신주의 역시 미국사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에세이 토픽으로, 훨씬 많은 기출 DBQ가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rogressive Era reformers and the federal government in bringing about reform at the national level. In your answer be sure to analyzed the successes and limitations of these efforts in the period 1900-1920. (2003년 B)
일러두기: 소피아 선생님의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칼럼은 3월, 4월 두 달간 AP US History 문제 분석 특강으로 9회 연재됩니다. AP US History 시험 준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와이즈프렙 (617-600-4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BostonKoreaEmart.com

15가지의 다양한 보습팩

풍부한 에센스로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있게

**팽팽한 피부를 위한
최강 보습법**

까칠해진 내 피부,
푸석푸석 화장도 안먹히고
늘어나는 잔주름, 탄력잃은 피부노화...
이제, 보습팩으로 관리하자.



24개의 다양한 효능의 팩을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

피부를 위한 보습팩 세트

녹차/비타민/알로에/진주/허브
레몬/코엔자임/석류/오이
달팽이/아로마/홍삼/해조
로얄젤리/콜라겐

\$20

보스톤코리아가 운영하는
믿음 주는 홈쇼핑

보스톤코리아 **BoKoMart**

주문
전화 **617-955-9112**
www.BostonKorea.com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6년 4월 셋째주)

● H-1B Updates

- 추첨완료

이민국은 올해 H-1B (2017 회계년도) 에 대한 컴퓨터 추첨을 4월13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추첨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2십3만6천여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2십3만3천여개가 신청됐습니다). 따라서, 추첨결과에 따른 이십만개 이상의 신청서들의 분류 작업과 선별되지 않는 케이스들의 return 작업 등 이민국이 해야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날짜에 (2015년 4월13일) 추첨을 마무리하긴 했으나 추첨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는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5월말까지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 최근 몇년간의 H-1B History

〈표1〉에 보시면 지난 10년간 H-1B 신청에 대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 H-1B 대안

올해로 4년 연속 H 비자에 대한 추첨이 실

년도	쿼터완료일	추첨완료일	총 신청서 수
2016 (2017회계년도)	2016년 4월 7일	2016년 4월 13일	236,000
2015 (FY 2016)	2015년 4월 7일	2015년 4월 13일	233,000
2014 (FY 2015)	2014년 4월 7일	2014년 4월 10일	172,500
2013 (FY 2014)	2013년 4월 5일	2013년 4월 7일	124,000
2012 (FY 2013)	2012년 6월 11일	X	
2011 (FY 2012)	2011년 11월 23일	X	
2010 (FY 2011)	2011년 1월 26일	X	
2009 (FY 2010)	2009년 12월 21일	X	
2008 (FY 2009)	2008년 4월 8일	*두번째 추첨 실시	
2007 (FY 2008)	2007년 4월 3일 *H-1B 역사상 처음으로 신청 첫날 모든 쿼터 소진으로 추첨 실시		

〈표1〉 지난 10년간 H-1B 신청에 대한 변화

시됐습니다. 추첨에 뽑힌 사람보다 추첨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3배정도 많습니다. 최근 매년 이맘때만 되면 H-1B 대안에 대한 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대안을 선택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H-3 라는 trainee 비자는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차후에 다시 H-1B 를 염두해 두신다면 결코 좋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냐하면 H-3 에서 H-1B 로의 전환에는 걸림돌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OPT 연장도 대안일 수 있겠지만 STEM 연장은 고용인이 E-Verify 등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많은 조건들을 이행해야만 가능하니 본인이 STEM 분야에 있다고 자동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즉, 얼마나 미국에 머물 계획인지, 차후에 영주권도 염두에 두고 있는

지, 본인의 전공분야, 지역 등을 다 고려하신 후에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새 시민권 신청서 (N-400)

4월13일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서 (form N-400) 를 개정했습니다. 기존의 신청서와 크게 달라진 않았지만 앞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실 분들은 새 신청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신청서는 오는 8월1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새 신청서를 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존의 21페이지 신청서에서 20페이지로 개정된 새 신청서는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이민국에서 직접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서 우측상단에 만료일이 03/31/2019 로 나와있으면 새 신청서가 맞습니다. 기존의 신청서는 만료일이 09/30/2015 로 나와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법률 칼럼 - 무한도전 팀이 미국에 온다면...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2003년 가수 김현정과 코요테의 신지, 슈가의 아이유미 등이 방송 촬영차 괄에 입국하려다가 비자 문제로 공항 이민국 사무실에 억류된 후 한국으로 추방된 일이 있었습니다. 2003년 당시에는 무비자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괄은 무비자로 관광이 가능한 특별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연예인들은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하였고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 "촬영차"라고 했다가 불법 취업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수감까지 찻었다고 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미국에서 장기 체류나 촬영 등을 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자가 적절했을까요? 만약 무한도전팀이 할리우드에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에 와서 꽤 오랜 기간 체류하며 준비를 하고 중간중간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한국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음악가가 미국에 진출하여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 싶어 한다면, 혹은 한국에서 체육 쪽에 재능을 가진 운동선수가 미국에 오고자 한다면 어떤 비자를 고려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비이민 취업 비자는 O 비자입니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

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O 비자 안에서도 O-1A, O-1B, O-2, O-3와 같이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O-1A에 해당하지만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O-1B가 해당됩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O-2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O-2는 O-1 비자를 받은 사람이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O-1 비자를 받은 운동선수의 코치는 O-1을 가진 운동선수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므로 O-2를 신청하여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O-1을 받은 운동선수 혹은 O-2를 받은 코치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O 비자의 경우, 승인이 되면 3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되며 이후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적정임금(prevaling wage)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한도전 팀이 미국에 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모두 방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예능인이므로 O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재석 씨의 경우 국민 MC로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상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O-1B 비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박명수 씨를 비롯한 다른 팀원들도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있고 수상 경력도 있

기 때문에 O-1B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인자인 박명수 씨나 존재감 부족을 지적받고 있는 정형돈 씨가 O-1B의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O-1B를 받을 유재석 씨가 무한도전을 진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이라는 주장으로 O-2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P 비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P 비자도 O 비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P-1A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가 받는 비자로 미국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 오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운동선수를 지원하는 코치나 트레이너도 선수와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P-1A 비자의 경우, 승인되면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받게 되며 연장은 가능하지만 P-1A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한도전 팀의 경우 P-1B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P-1B는 유명한 예능 그룹이나 음악 그룹 구성원들이 미국에 와서 공연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한국 가수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는 많은 경우 P 비자로 입국을 합니다. 무한도전팀의 경우, 자체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그룹이므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자로 미

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행사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그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팀 구성원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P-4 비자를 받아 방문이 가능하므로 만약 유재석 씨의 부인이 유재석 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공연을 함께 다니고자 한다면 P-4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가수나 음악가들의 경우, 넓은 미국 시장에서 활동해 보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경우에도 미국에 방문하여 공연을 하는 것을 매우 큰 성취로 봅니다. 미국 또한 다양한 예술가들이 미국에서 활동하여 미국 문화가 다양하고 풍부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맞는 비자를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분명 이를 수 있는 꿈일 것입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구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파나소닉 플로어 모델 대세일

100세 동반자
베네티엘스전자



EP30067 ~~\$4,500~~
\$2,300

EP30066 ~~\$4,000~~
\$1,700

미동부 최대 마사지체어 종합 전시장

SAMSUNG 김치 냉장고 BIG SALE

220L **\$1199** (REG. \$1799)
121L **\$799** (REG. \$999)
180L **\$999** (REG. \$1300)

삼성 김치냉장고
장속의 시스템을 구현한
메탈그라운드
고급 전기 방식 무료 증정
무료 딜리버리, 3년 워런티

딤채 김치 냉장고
스탠드형 구입시
위니아 에어 워셔 무료 증정
소형 구입시
고급 전기 방식 무료 증정



직접 오셔서
최첨단 마사지 체어
무료 체험 해보세요!

단체 선물용 소형 연마기
(5개 이상구입시) 구입시
최대 40% 할인

전문 기술자 상주로
(Part & Labor)
최대 5년 / Full Warranty

안마의자 구입시
조양다나, 반신욕기, 풍고 안마의자
크레딧 드립니다

미동부공식 대리점



~~\$7,999~~
\$5,220
Made in Japan



Dream Wave
Massage Chair

~~\$12,500~~
\$8,550

선박순 10명
Body Slimmer (\$1,200) 상당
또는 삼성 김치냉장고
무료 증정



Inada Flex 3s
Massage Chair

Fuji Cyber Relax
FJ-3650B



30개월
\$80/월
3년 Warranty

프락이 간편하여 휴대 선량로
개발된 신제품, 4개의 마사지 롤러,
강력한 진동 마사지 체어



Fuji Cyber Relax
ZERO-G FJ-4600B

3D 방식 배구, 일본, 중국, 한국
전용 마사지 7종, 한국인한테
가장 인기 많은 제품

90개월
\$100/월
3년 Warranty



Fuji Cyber Relax
FJ-5500

L자형 마사지
가방, 머리부터
발끝이까지
맞사지
헤어
기동됨

90개월
\$100/월
3년 Warranty



Fuji Cyber Relax
EC-3800

세계최초 4D 방식,
초정밀 마사지 기법
풍광명품, 저가

90개월
\$120/월
3년 Warranty



Panasonic EP-MA73
ULTRA 3D 방식,
다각도 마사지를,
Multi Heat 기능,
Hot Stone 치료기법

60개월
\$125/월
7년 Warranty



Panasonic EP-MA70
3D 방식 레이 마사지
7종과 스팀케어 기법

90개월
\$110/월
3년 Warranty



Apex Lotus

48개월
\$93/월



Apex Reget

48개월
\$141/월



Body Slimmer
FJ-099
Body
Slimmer



Panasonic
Core Trainer



HEALTH MATE
반신욕기

BIG SALE
\$1,800
REG. \$2,400



무릎사우나
무릎입구 높이 조절기능

특별세일
\$600 → \$500

최대 저고 보유 / 최신헌
태진 노래방기계 대세일



35,000원 이상 수취,
상용급 넘쳐는 내장하연,
신규 인력해 입에이로 가능

BIG SALE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0%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탈, 런드로맷(Laundromat) 상점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서쪽 세탁소 셔츠 유닛만, 고급물 안, 연매상 \$148,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10,000 주 6일 오픈, 풀 리커 면허증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3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드롭 보스톤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험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아카데미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 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프시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4월 Spring Break 프로그램

1.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New SAT I class
새로운 문제유형을 완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최적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수업일정)
10:00-1:00 강의
(Evidence-Based Reading, Writing, Math
without a calculator, Math with a calculator)
1:00-2:00 점심식사
2:00-5:00 문제풀이 연습
2. SAT II Subject test classes
Math II C, Biology, Chemistry, Physics
3. 5월 AP 대비 전과목 수업가능

4. 초, 중학생을 위한 writing class
5-8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소규모 class로 운영됩니다.
(Goals)
• Improve writing skills
(Six traits: Ideas and Content, Organization,
Word Choice, Conventions,
Sentence Fluency, and Voice).
• Improve critical thinking skills.
• Prepare for school writing assignments
기간: 4.16(토)~23(토) 8일간
시간: 1:00-3:00

Narrative Writing, Expository Writing,
Technical Writing/Vocabulary,
Persuasive Writing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 339.234.5255~7 / Fax. 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